

2019 개정 누리과정(안) 공청회

2019. 5. 16(목) 15:00 ~ 17:30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

Program | 2019 개정 누리과정(안) 공청회

| 일정표 |

15:00	개회	〈사 회〉 김은영(육아정책연구소 저출산·육아정책실장)
15:00~15:10 (~10)	국민의례 환영사 인사말씀	백선희(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설세훈(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 김상희(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15:10~15:40 (~10) (~20)	주제 발표 개발 배경 및 특성 주요 내용	「2019 개정 누리과정(안)」 김은영(육아정책연구소 저출산·육아정책실장) 임부연(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5:40~15:50 (~10)	휴식	
15:50~17:10 (~80)	토론	〈좌 장〉 나 정(동국대 불교아동보육학과 교수) 〈토론자〉 권정윤(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최혜영(창원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엄미선(일동유치원 원장) 김영명(서강어린이집 원장) 정소영(소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김선주(죽림어린이집 교사) 박혜진(새싹유치원 교사) 이정선(반포퍼스티지 하늘어린이집 교사) 서현빈(성결대학교부속유치원 학부모) 이경미(EBS 유아교육사업 팀장)
17:10~17:30 (~2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7:30	폐회	

Contents

| 2019 개정 누리과정(안) 공청회

| 발 표 | 「2019 개정 누리과정(안)」 1

「2019 개정 누리과정(안)」 개발 배경 및 특성 3

「2019 개정 누리과정(안)」 주요 내용 7

[참고] 누리과정 신구대조표 17

| 토 론 | 41

권정윤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최혜영 (창원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엄미선 (일동유치원 원장)

김영명 (서강어린이집 원장)

정소영 (소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김선주 (죽림어린이집 교사)

박혜진 (새싹유치원 교사)

이정선 (반포퍼스티지 하늘어린이집 교사)

서현빈 (성결대학교부속유치원 학부모)

이경미 (EBS 유아교육사업 팀장)

「누리과정 개정 정책연구」 연구진

구 분	이 름	소 속
책임자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임부연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공동 연구진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고영미	순천향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문무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경화	부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완정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교수
	이정옥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정선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
부처	문복진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연구관
	박현정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연구사
	임세희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사무관

| 발 표 |

「2019 개정 누리과정(안)」

「2019 개정 누리과정(안)」 개발 배경 및 특성

「2019 개정 누리과정(안)」 주요 내용

[참고] 누리과정 신구대조표

발 표

「2019 개정 누리과정(안)」 개발 배경 및 특성

김은영(육아정책연구소 저출산·육아정책실장)

1. 「2019 개정 누리과정(안)」 개발 배경 및 절차

누리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 관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원화되어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3-5세 표준보육과정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으로 통합하여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3-5세 유아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추진되어왔다. 2013년 3월부터 3-5세 유아 모두에게 누리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생애초기의 공정한 출발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3-5세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학부모의 부담이 경감되는 등의 실질적 효과를 가져왔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2013년 제정 이래 현재까지 우리나라 유아를 위한 국가수준의 공통과정으로 기능하고 있었으나, 현장에 적용되면서 교육과정으로서 구성 체계 보완의 필요성 및 과다한 연령별 교육 내용과 현장 적용의 획일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2017년 5월 시작된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정과제 50번으로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명시하였고, 세부과제 중 하나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을 제시하였다.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을 위해 유아와 초등학생의 적정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법제화 내용이 제안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국정과제를 구현하기 위해 2017년 12월 27일 출발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유아 중심·놀이 중심의 교육과정 혁신’을 발표하게 되었다.

누리과정 혁신방향에는 개별 유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며, 유아의 자유놀이 권장, 현장의 자율성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누리과정 관련 선행연구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제정·개정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누리과정의 성격과 인간상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 보다 완성된 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육아정책연구소는 교육부의 위탁으로 2018년 6월부터 누리과정 개정 정

책연구를 수행하였다. 개정 연구는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전문가, 교육과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 11명과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의 연구협력관을 포함하여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진행하였다. 연구진 전체가 개정방향을 공유하고 연구의 효율을 구하고자 총론과 영역별 목표 및 내용을 전체 연구진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논의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10회의 전체연구진 회의, 연구진 집중워크숍 4회, 현장교사 간담회 3회, 초등교육전문가와 특수교육전문가, 현장교사를 포함한 전문가 자문회의 4회, 현장포럼 5회, 전국 토론회 및 설명회 3회 등을 포함하여 총 29회에 걸친 공동 작업을 통하여 「2019 개정 누리과정」 1차 시안을 개발하였다. 이후 국어학자 2인의 운문과 법학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늘 발표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안)」을 마련하였다.

2. 2019 개정 누리과정(안)의 주요 특성

2019 개정 누리과정(안)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가. 유아 중심 · 놀이 중심을 추구

「2019 개정 누리과정(안)」은 유아교육의 기본 정신인 ‘놀이’를 중심으로 유아들의 배움을 지원하는 유아 중심·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재정립하고자 ‘자유놀이’를 강조하고, ‘놀이시간을 충분히 편성’하는 등의 문장을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의 교육혁신 방향에서 강조하는 놀이와 씬, 학습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의 방향을 통일감 있게 추진하고자 하였다.

나. 누리과정 성격을 공통의 교육과정으로 명시

「2019 개정 누리과정(안)」의 가장 큰 노력 중의 하나는 누리과정의 성격을 ‘국가수준에서 고시한 공통의 교육과정’으로 명시한 부분이다. 누리과정을 공통의 교육과정으로 명시함으로써 그동안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이라는 차원에서 가져온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경험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다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다. 추구하는 인간상을 명시하며 총론의 구성 체계 확립

「2019 개정 누리과정(안)」에서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서 누락되었던 인간상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인간상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명시하였다. 이는 누리과정이 교육과정으로서 전체 구성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 것이며, 동시에 21세기 미래지향적 인간을 길러내기 위한 핵심역량을 반영하여 인간상을 제시한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성 측면이 적극 반영된 것이다.

라. 기존 누리과정 구성 체계 유지 및 5개 영역 내용 간략화

유아 중심 및 놀이 중심을 강조한 「2019 개정 누리과정(안)」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실행 될 수 있도록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기본 구성 방향과 구성 체계를 가능한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5개 영역의 내용구성에 있어서 기존의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유아의 연령별로 내용을 구성하였다면, 「2019 개정 누리과정(안)」에서는 3-5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최소한의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내용범주를 영역별 3개 정도로 조정하고 특히 연령별로 제시한 세부내용의 핵심요소를 내용과 통합 조정하여 59개의 내용으로 간략화 하였다.

마. 누리과정 실행력과 현장의 자율성 강조

「2019 개정 누리과정(안)」총론에서 놀이 중심의 누리과정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용어 등을 조정하여 현장에서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누리과정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교사의 자율권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또한 5개 영역의 내용을 간략히 하고 경험과 놀이를 강조하여 현장교사가 교사용 지도서가 아닌 고시문을 통해 보다 수월하게 교육과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누리과정 실행력 고취에 중점을 두었다.

바. 평가의 간략화

누리과정의 평가는 평가의 목적, 평가의 대상, 평가의 방법, 그리고 평가의 활용을 기본 원리로 하는 간략한 문구로 기술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아에 대한 이해와 누리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자율적 평가가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발 표

「2019 개정 누리과정(안)」 주요 내용

임부연(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누리과정의 성격

누리과정은 3~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이다.

-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기관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 나.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추구한다.
- 다.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한다.
- 라.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추구한다.
- 마. 유아, 교사, 원장(감),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가는 것을 추구한다.

제1장 총론

I. 누리과정의 구성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누리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 가. 건강한 사람
- 나. 자주적인 사람
- 다. 창의적인 사람
- 라. 감성이 있는 사람
- 마. 더불어 사는 사람

2. 목적과 목표

누리과정의 목적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인성을 바르게 하며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에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가.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 나.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능력을 기른다.
- 다.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 라.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 마.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3. 구성의 중점

누리과정 구성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 가. 3~5세 모든 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나.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여 구성한다.
- 다.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 라. 3~5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최소한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 마. 0~2세 보육과정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II. 누리과정의 운영

1. 편성·운영

다음의 사항에 따라 누리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가.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 나. 일과 운영에 따라 확장하여 편성할 수 있다.
- 다.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 라. 하루 일과에서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 마. 성, 신체적 특성,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으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 바. 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
- 사.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한다.
- 아. 교사 연수를 통해 누리과정의 운영이 개선되도록 한다.

2. 교수·학습

교사는 다음 사항에 따라 유아를 지원한다.

- 가.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
- 나. 유아의 자유놀이부터 교사가 계획한 활동까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
- 다. 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한다.
- 라. 유아와 유아, 유아와 교사, 유아와 환경 간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마. 5개 영역의 내용을 통합하여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
- 바. 개별 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사. 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한다.

3. 평가

평가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 가. 누리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한다.
- 나. 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와 누리과정의 운영을 평가한다.
- 다. 평가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 라. 평가의 결과는 유아에 대한 이해와 누리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장 영역별 목표 및 내용

I. 신체운동·건강

1. 목표

실내외에서 신체활동을 즐기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한다.

- 1) 신체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 2) 건강한 생활습관을 기른다.
- 3)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른다.

2. 내용

내용 범주	내용
신체활동 즐기기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
	신체 움직임을 조절한다.
	기초적인 이동운동, 제자리 운동, 도구를 이용한 운동을 한다.
	실내외 신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건강하게 생활하기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한다.
	몸에 좋은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바른 태도로 즐겁게 먹는다.
	하루 일과에서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안전하게 생활하기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바르게 사용한다.
	교통안전 규칙을 지킨다.
	안전사고, 화재, 재난, 학대, 유괴 등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행동한다.

II. 의사소통

1. 목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상상력을 기른다.

- 1) 일상생활에서 듣고 말하기를 즐긴다.
- 2)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진다.
- 3)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 상상하기를 즐긴다.

2. 내용

내용범주	내용
듣기와 말하기	말이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말한다.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해서 말한다.
	바른 태도로 듣고 말한다.
	고운 말을 사용한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말과 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의 상징, 글자 등의 읽기에 관심을 가진다.
	자신의 생각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나 글자로 표현한다.
책과 이야기 즐기기	책 읽기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하기를 즐긴다.
	동화, 동시에서 말과 글의 재미를 느낀다.
	말놀이와 이야기 짓기를 즐긴다.

Ⅲ. 사회관계

1. 목표

자신을 존중하고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가진다.

- 1)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 2)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낸다.
- 3) 우리가 사는 사회와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

2. 내용

내용범주	내용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긴다.
	나의 감정을 알고 상황에 맞게 표현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한다.
더불어 생활하기	가족의 의미를 알고 화목하게 지낸다.
	친구와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낸다.
	친구와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서로 다른 감정, 생각, 행동을 존중한다.
	일상에서 예의를 지켜 행동한다.
	약속과 규칙의 필요성을 알고 지킨다.
사회에 관심 가지기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아본다.
	우리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진다.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갖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IV. 예술경험

1. 목표

아름다움과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 표현을 즐긴다.

- 1) 자연과 생활 및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 2) 예술을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즐긴다.
- 3) 다양한 예술 표현을 존중한다.

2. 내용

내용범주	내용
아름다움 찾아보기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
	다양한 예술적 요소에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다양한 노래를 즐겨 부른다.
	신체, 사물, 악기로 간단한 소리와 리듬을 만들어 본다.
	신체나 도구를 활용하여 움직임과 춤으로 자유롭게 표현한다.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극놀이로 경험이나 이야기를 표현한다.
예술 감상하기	다양한 예술을 감상하며 상상하기를 즐긴다.
	서로 다른 예술 표현을 존중한다.
	우리나라 전통 예술에 관심을 갖고 친숙해진다.

V. 자연탐구

1. 목표

탐구하는 과정을 즐기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가진다.

- 1) 일상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과정을 즐긴다.
- 2) 생활 속의 문제를 수학적, 과학적으로 탐구한다.
- 3) 생명과 자연을 존중한다.

2. 내용

내용범주	내용
탐구과정 즐기기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가진다.
	궁금한 것을 탐구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탐구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각에 관심을 갖는다.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한다.
	물체를 세어 수량을 안다.
	물체의 위치와 방향, 모양을 알고 구별한다.
	일상에서 길이, 무게 등의 속성을 비교한다.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을 찾는다.
	일상에서 모은 자료를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도구와 기계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자연과 더불어 살기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생명과 자연환경을 소중히 여긴다.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생활과 관련짓는다.

[참 고] 누리과정 신구조표

누리과정 개정(안) 구성 체계 비교

표 1 | 누리과정 개정(안) 구성 체계 비교

2015 누리과정 구성 체계	2019 개정 누리과정(안) 구성 체계
제1장 누리과정의 총론 I. 구성 방향 II. 목적과 목표 1. 목적 2. 목표 III. 편성과 운영 1. 편성 2. 운영 3. 교수·학습 4. 평가	누리과정의 성격(신설) 제1장 총론 I. 누리과정의 구성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신설) 2. 목적과 목표 3. 구성의 중점 II. 누리과정의 운영 1. 편성·운영 2. 교수·학습 3. 평가
제2장 연령별 누리과정 제1절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영역별 목표 I. 신체운동·건강 II. 의사소통 III. 사회관계 IV. 예술경험 V. 자연탐구 제2절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영역별 내용 I. 3세 누리과정 II. 4세 누리과정 III. 5세 누리과정	제2장 영역별 목표 및 내용 I. 신체운동·건강 1. 목표 2. 내용 II. 의사소통 1. 목표 2. 내용 III. 사회관계 1. 목표 2. 내용 IV. 예술경험 1. 목표 2. 내용 V. 자연탐구 1. 목표 2. 내용

누리과정의 성격(신설)

표 2 | 누리과정의 성격 개정(안)

누리과정의 성격 개정(안)

□ 누리과정의 성격

누리과정은 3~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이다.

-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기관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 나.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추구한다.
- 다.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한다.
- 라.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추구한다.
- 마. 유아, 교사, 원장(감),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가는 것을 추구한다.

제1장 총론

1. 누리과정의 구성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신설)

표 3 | 누리과정의 구성방향: 추구하는 인간상 개정(안)

누리과정의 구성방향: 추구하는 인간상(신설) 개정(안)

1. 추구하는 인간상

누리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 가. 건강한 사람
- 나. 자주적인 사람
- 다. 창의적인 사람
- 라. 감성이 있는 사람
- 마. 더불어 사는 사람

2. 목적과 목표

표 4 | 누리과정의 구성방향: 목적과 목표 개정(안)

2015 누리과정 목적과 목표	누리과정의 구성방향: 목적과 목표 개정(안)
II. 목적과 목표 1. 목적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목표 가. 기본 운동 능력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른다. 다.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라.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 경험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마.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세계를 탐구하며, 일상생활에서 수학적·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2. 목적과 목표 누리과정의 목적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인성을 바르게 하며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에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나.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능력을 기른다. 다.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라.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마.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3. 구성의 중점

표 5 | 누리과정의 구성방향: 구성의 중점 개정(안)

2015 누리과정 구성 방향	누리과정의 구성방향: 구성의 중점 개정(안)
1. 구성 방향 누리과정의 구성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질서, 배려, 협력 등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 2.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전인발달을 이루도록 구성한다. 3.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 4. 만 3~5세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성한다. 5.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6.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0~2세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구성의 중점 누리과정 구성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가. 3~5세 모든 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나.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여 구성한다. 다.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라. 3~5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최소한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마. 0~2세 보육과정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II. 누리과정의 운영

1. 편성·운영

표 6 누리과정의 운영: 편성·운영(안)

2015 누리과정 편성과 운영	누리과정의 운영: 편성·운영(안)
<p>III. 편성과 운영</p> <p>1. 편성</p> <p>가.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p> <p>나. 5개 영역의 내용을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편성한다.</p> <p>다. 유아의 발달 특성 및 경험을 고려하여 놀이를 중심으로 편성한다.</p> <p>라. 반(학급)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편성한다.</p> <p>마. 성별, 종교, 신체적 특성, 가족 및 민족 배경 등으로 인한 편견이 없도록 편성한다.</p> <p>바. 일과 운영 시간에 따라 심화 확장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p> <p>2. 운영</p> <p>가.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에 의거하여 운영한다.</p> <p>나. 실내·외 환경을 다양한 흥미 영역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p> <p>다. 유아의 능력과 장애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p> <p>라. 부모와 각 기관의 실정에 따라 부모교육을 실시한다.</p> <p>마.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한다.</p> <p>바. 교사 재교육을 통해서 누리과정 활동이 개선되도록 운영한다.</p>	<p>II. 누리과정의 운영</p> <p>1. 편성·운영</p> <p>다음의 사항에 따라 누리과정을 편성·운영한다.</p> <p>가.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p> <p>나. 일과 운영에 따라 확장하여 편성할 수 있다.</p> <p>다.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p> <p>라. 하루 일과에서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p> <p>마. 성, 신체적 특성,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으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p> <p>바. 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p> <p>사.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한다.</p> <p>아. 교사 연수를 통해 누리과정의 운영이 개선되도록 한다.</p>

2. 교수·학습

표 7 | 누리과정의 운영: 교수·학습(안)

2015 누리과정 편성과 운영: 교수·학습 방법	누리과정의 운영: 교수·학습(안)
3. 교수·학습 방법 <p>가. 놀이를 중심으로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p> <p>나. 유아의 흥미를 중심으로 활동을 선택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p> <p>다. 유아의 생활 속 경험을 소재로 하여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습득하도록 한다.</p> <p>라. 유아와 교사, 유아와 유아, 유아와 환경 간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p> <p>마.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p> <p>바. 실내·실외활동, 정적·동적활동, 대·소집단활동 및 개별활동, 휴식 등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p> <p>사. 유아의 관심과 흥미, 발달이나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유아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학습하도록 한다.</p>	2. 교수·학습 <p>교사는 다음 사항에 따라 유아를 지원한다.</p> <p>가.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p> <p>나. 유아의 자유놀이부터 교사가 계획한 활동까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p> <p>다. 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한다.</p> <p>라. 유아와 유아, 유아와 교사, 유아와 환경 간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p> <p>마. 5개 영역의 내용을 통합하여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p> <p>바. 개별 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p> <p>사. 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한다.</p>

3. 평가

표 8 | 누리과정의 운영: 평가(안)

2015 누리과정 편성과 운영: 평가	누리과정의 운영: 평가(안)
4. 평가 가. 누리과정 운영 평가 (1) 운영 내용이 누리과정의 목표와 내용에 근거하여 편성·운영되었는지 평가한다. (2) 운영 내용 및 활동이 유아의 발달수준과 흥미·요구에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3) 교수·학습 방법이 유아의 흥미와 활동의 특성에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4) 운영 환경이 유아의 발달특성과 활동의 주제, 내용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계획안 분석, 수업 참관 및 모니터링, 평가척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6) 운영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계획을 수정·보완하거나 이후 누리과정 편성·운영에 활용한다. 나. 유아 평가 (1) 누리과정 목표와 내용에 근거하여 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평가한다. (2) 유아의 지식, 기능, 태도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3) 유아의 일상생활과 누리과정 활동 전반에 걸쳐 평가한다. (4) 관찰, 활동 결과물 분석, 부모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5) 유아평가 결과는 유아에 대한 이해와 누리과정 운영 개선 및 부모 면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평가 평가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가. 누리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한다. 나. 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와 누리과정의 운영을 평가한다. 다. 평가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라. 평가의 결과는 유아에 대한 이해와 누리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장 영역별 목표 및 내용

1. 신체운동·건강

표 9 | 신체운동·건강 영역 개정(안) 비교

2015 누리과정 신체운동·건강 영역				신체운동·건강 영역(안)		
목표				1. 목표		
기본 운동 능력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실내외에서 신체활동을 즐기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한다.		
1. 감각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1) 신체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2. 신체를 조절하고 기본 운동 능력을 기른다.				2) 건강한 생활습관을 기른다.		
3. 신체 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3)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른다.		
4.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5.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2. 내용		
내용						
내용 범주	내용	세부내용			내용 범주	내용
		3세	4세	5세		
신체 인식 하기	감각능력 기르고 활용하기	감각적 차이를 경험한다.	감각적 차이를 구분한다.	감각으로 대상이나 사물의 특 성과 차이를 구분한다.	신체활동 즐기기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 신체 움직임을 조절한다. 기초적인 이동 운동, 제자리 운 동, 도구를 이용한 운동을 한다. 실내외 신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감각기관을 인식하고, 활용해 본다.	여러 감각기관을 협응하여 활용 한다.	여러 감각기관을 협응하여 활용 한다.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이기	신체 각 부분의 명칭을 알고, 움직임에 관심을 갖는다.	신체 각 부분의 특성을 이해하 고 활용하여 움직인다.	신체 각 부분의 특성을 이해하 고 활용하여 움직인다.	건강하게 생활하기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한다.

신체운동·건강 영역(안)				
2015 누리과정 신체운동·건강 영역				
내용	3세	4세	5세	내용
신체 조절하기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움직인다.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움직인다.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움직인다.	몸에 좋은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바른 태도로 즐겁게 먹는다.
신체 조절하기	신체균형을 유지해본다.	다양한 자세와 움직임에서 신체균형을 유지한다.	다양한 자세와 움직임에서 신체균형을 유지한다.	하루 일과에서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신체 조절하기	공간, 힘, 시간 등의 움직임 요소를 경험한다.	공간, 힘, 시간 등의 움직임 요소를 활용하여 움직인다.	공간, 힘, 시간 등의 움직임 요소를 활용하여 움직인다.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신체 조절하기	신체 각 부분의 움직임을 조절해 본다.	신체 각 부분을 활용하여 움직임을 조절한다.	신체 각 부분을 활용하여 움직임을 조절한다.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신체 조절하기	눈과 손을 활용하여 소근육을 조절해 본다.	눈과 손을 활용하여 소근육을 조절해 본다.	눈과 손을 활용하여 소근육을 조절해 본다.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바르게 사용한다.
신체 조절하기	걷기, 달리기 등 이동운동을 한다.	걷기, 달리기, 뛰기 등 다양한 이동운동을 한다.	걷기, 달리기, 뛰기 등 다양한 이동운동을 한다.	교통안전 규칙을 지킨다.
신체 조절하기	제자리에서 몸을 움직여 본다.	제자리에서 몸을 다양하게 움직인다.	제자리에서 몸을 다양하게 움직인다.	안전사고, 화재, 재난, 현대, 유괴 등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행동한다.
신체 조절하기	신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신체 활동에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신체 활동에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신체 조절하기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신체 활동에 참여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신체 활동에 참여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신체 활동에 참여한다.	
신체 조절하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운동능력에 참여한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운동능력에 참여한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운동능력에 참여한다.	
신체 조절하기	규칙적으로 바깥에서 신체 활동을 한다.	규칙적으로 바깥에서 신체 활동을 한다.	규칙적으로 바깥에서 신체 활동을 한다.	

2015 누리과정 신체운동·건강 영역					신체운동·건강 영역(안)
내용 범주	내용	세부내용			
		3세	4세	5세	
건강 하게 생활 하기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 활동하기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하여 신 체 활동을 한다.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하여 신 체 활동을 한다.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하여 신 체 활동을 한다.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하기	손과 이를 깨끗이 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손과 이를 깨끗이 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스스로 몸을 깨끗이 하는 습관 을 기른다.	
		주변을 깨끗이 한다.	주변을 깨끗이 하는 습관을 기 른다.	주변을 깨끗이 하는 습관을 기 른다.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적당량의 음식을 골고루 먹는 다.	
	비린 식생활하기	몸에 좋은 음식에 관심을 갖는 다.	몸에 좋은 음식을 알아본다.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	
건강한 일상생활 하기		비린 데도로 식사한다.	음식을 소중히 여기고 식예절을 지킨다.	음식을 소중히 여기고 식예절을 지킨다.	
	건강한 일상생활 하기	규칙적으로 잠을 자고,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규칙적으로 잠을 자고,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규칙적으로 잠을 자고,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하루 일과에 즐겁게 참여한다.	하루 일과에 즐겁게 참여한다.	하루 일과에 즐겁게 참여한다.	
		스스로 화장실에서 배변한 다.	바른 배변습관을 기른다.	규칙적인 배변습관을 기른다.	
	질병 예방하기	질병의 위험을 알고 주의한 다.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 한다.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 한다.	
안전 하게 생활 하기		날씨에 맞게 옷을 입는다.	날씨와 상황에 알맞게 옷을 입는다.	날씨와 상황에 알맞게 옷을 입는다.	
	안전하게 놀이하기	놀이기구나 놀잇감, 도구를 안 전하게 사용한다.	놀이기구나 놀잇감, 도구를 안 전하게 사용한다.	놀이기구나 놀잇감, 도구의 바 른 사용법을 알고 안전하게 사 용한다.	
		안전한 놀이장소를 인다.	안전한 장소를 알고 안전하게 놀이 한다.	안전한 장소를 알고 안전하게 놀이 한다.	

신체운동·건강 영역(안)				
2015 누리과정 신체운동·건강 영역				
내용 범주	내용	세부내용		
		3세	4세	5세
교통안전 규칙 지키기		TV,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바르게 사용한다.	TV, 인터넷, 통신기기 등의 위해성을 알고, 바르게 사용한다.	TV, 인터넷, 통신기기 등의 위해성을 알고, 바르게 사용한다.
	교통안전 규칙을 안다.	교통안전 규칙을 안다.	교통안전 규칙을 알고 지킨다.	교통안전 규칙을 알고 지킨다.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한다.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한다.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한다.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한다.
비상 시 적절히 대처하기		학대, 성폭력, 실종, 유괴상황을 알고 도움을 요청한다.	학대, 성폭력, 실종, 유괴상황 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고 행동한다.	학대, 성폭력, 실종, 유괴상황 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고 행동한다.
	재난 및 사고 등 비상 시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안다.	재난 및 사고 등 비상 시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안다.	재난 및 사고 등 비상 시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행동한다.	재난 및 사고 등 비상 시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행동한다.

II. 의사소통

표 10 의사소통 영역 개정(안)

2015 누리과정 의사소통 영역				의사소통 영역(안)	
목표				1. 목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른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상상력을 기른다.	
1.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태도와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1) 일상생활에서 듣고 말하기를 즐긴다.	
2.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하는 능력을 기른다.				2)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진다.	
3. 글자와 책에 친숙해지는 경험을 통하여 글자 모양을 인식하고 읽기에 흥미를 가진다.				3)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 상상하기를 즐긴다.	
4. 말과 글의 관계를 알고 자신의 생각, 느낌, 경험을 글로 표현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내용				2. 내용	
내용 범주		세부 내용		내용범주	내용
듣기	날말과 문장 듣고 이해하기	3세	날말의 발음에 관심을 가지고 듣는다.	듣기와 말하기	말이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
		4세	날말의 발음에 관심을 가지고 듣는다.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
	5세	날말의 발음에 관심을 가지고 비슷한 발음을 듣고 구별한다.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말한다.		
	다양한 날말과 문장을 듣고 뜻을 이해한다.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해서 말한다.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	3세	일상생활과 관련된 날말과 문장을 듣고 뜻을 이해한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바른 태도로 듣고 말한다.	
	4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		고운 말을 사용한다.	
동요, 동시, 동화 듣고 이해하기	3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한다.		말과 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말과 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4세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한다.			주변의 상징, 글자 등의 읽기에 관심을 가진다.
동요, 동시, 동화 듣고 이해하기	3세	동요, 동시, 동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듣고 즐긴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4세	동요, 동시, 동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듣고 이해한다.			
동요, 동시, 동화 듣고 이해하기	3세	동요, 동시, 동화를 듣고 노래를 부른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4세	동요, 동시, 동화를 듣고 노래를 부른다.			

2015 누리과정 의사소통 영역					의사소통 영역(인)	
내용 범주	내용	3세	세부 내용		내용범주	내용
			4세	5세		
말하기	비른 태도로 듣기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듣는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주의 깊게 듣는다.		자신의 생각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나 글자로 표현한다.
		친숙한 낱말을 발음해 본다.	친숙한 낱말을 정확하게 발음해 본다.	정확한 발음으로 말한다.	책과 이야기 즐기	책 읽기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하기를 즐긴다.
	낱말과 문장으로 말하기	새로운 낱말에 관심을 가진다.	다양한 낱말을 사용하여 말한다.	다양한 낱말을 사용하여 상황에 맞게 말한다.		동화, 동시에서 말과 글의 재미를 느낀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간단한 문장으로 말한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간단한 문장으로 말한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양한 문장으로 말한다.		말놀이와 이야기 짓기를 즐긴다.
듣기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말해본다.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말한다.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적절 한 낱말과 문장으로 말한다.		
		상대방을 바라보며 말한다.	주제를 정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주제를 정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읽기	상황에 맞게 바른 태도로 말하기	비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차례를 지켜 말한다.	때와 장소, 대상에 알맞게 말한다.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찾아본다.	비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찾아본다.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찾아본다.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찾아본다.		

2015 누리과정 의사소통 영역					의사소통 영역(안)
내용 범주	내용	3세	세부 내용		
			4세	5세	
		읽어 주는 글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다.	읽어 주는 글의 내용에 관심을 가진다.	읽어 주는 글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 본다.	
		책에 흥미를 가진다.	책 보는 것을 즐기고 소중하게 다룬다.	책 보는 것을 즐기고 소중하게 다룬다.	
	책 읽기에 관심 가지기	책의 그림을 단서로 내용을 추측해 본다.	책의 그림을 단서로 내용을 이해한다.	책의 그림을 단서로 내용을 이해한다.	
			궁금한 것을 책에서 찾아본다.	궁금한 것을 책에서 찾아본다.	
쓰기		말을 글로 나타내는 것에 관심을 보인다.	말이나 생각을 글로 나타낼 수 있음을 안다.	말이나 생각을 글로 나타낼 수 있음을 안다.	
	쓰기에 관심 가지기	자기 이름의 글자에 관심을 가진다.	자기 이름을 써 본다.	자신의 이름과 주변의 친숙한 글자를 써 본다.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한다.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한다.	
	쓰기 도구 사용하기		쓰기 도구에 관심을 가지고 사용해 본다.	쓰기 도구의 바른 사용법을 알고 사용한다.	

III. 사회관계

표 11 사회관계 영역 개정(안)

2015 누리과정 사회관계 영역		사회관계 영역(안)	
목표		1. 목표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자신을 존중하고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기른다.	
1.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자율성을 기른다.		1)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2.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알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조절한다.		2)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낸다.	
3.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며 서로 협력한다.		3) 우리가 사는 사회와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	
4. 친구, 공동체 구성원들과 서로 돕고, 예의규칙 등 사회적 가치를 알고 지킨다.			
5. 우리 동네,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 관심을 가진다.		2. 내용	
내용		내용범주	내용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기기	세부 내용	
		3세	4세
		나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나에 대해 알아본다.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에 관심을 갖는다.	나와 다른 사람의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를 존중한다.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고 표현하기	나의 일 스스로 하기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	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본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 본다.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하고 해 본다.
		자신에게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음을 안다.	자신의 감정을 알고 표현한다.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고 표현하기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고 표현하기	다른 사람의 감정에 관심을 갖는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고 공감한다.

2015 누리과정 사회관계 영역					사회관계 영역(안)	
내용 범주	내용	3세	세부 내용		내용범주	내용
알고 조절 하기	나의 감정 조절하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 본다.	4세	5세		약속과 규칙의 필요성을 알고 지킨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기	가족의 소중함을 인다.	가족의 소중함을 인다.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인다.	사회에 관심 가지기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아본다.
	가족과 협력하기	가족 구성원을 알아본다.	가족 구성원의 역할에 대해 알아 본다.	가족과 화목하게 지낸다.		우리나라에 대해 지부심을 가진다.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가족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본다.	가족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고 실천한다.	다양한 가족구조에 대해 알아 본다.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갖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친구와 함께 놀이한다.	친구와 협동하며 놀이한다.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함을 알고 실천한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 하기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나와 친구의 의견에 차이가 있음을 인다.	친구와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친구와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공동체 에서 화목하게 지내기	교사 및 주변 사람과 화목하게 지낸다.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과 도움을 주고받는다.	다른 사람과 도움을 주고받고 서로 협력한다.		
	사회적 가치를 알고 지키기	다들 사람의 소유물을 존중한다.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한다.	다들 사람과 도움을 주고받고, 교사와 주변 사람과 화목하게 지낸다.		
		약속과 규칙을 지켜야 함을 안다.	다른 사람의 생각 행동을 존중한다. 친구와 어른께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다들 사람과 한 약속이나 공공 규칙을 지킨다.		
			자연과 자원을 아끼는 습관을 기른다.			

2015 누리과정 사회관계 영역					사회관계 영역(안)
내용 범주	내용	3세	세부 내용		
			4세	5세	
사회에 관심 갖기	지역 사회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	우리 동네의 이름을 안다. 우리 동네 사람들에 관심을 갖 는다.	우리 동네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 물건을 살 때 돈이 필요함을 안다.	우리 동네에 대해 알아본다. 다양한 직업에 관심을 갖는다. 일상생활에서 돈의 쓰임에 대 해 안다.	
	우리 나라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에 관 심을 가진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알 고 예절을 지킨다.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와 풍습 에 관심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와 풍습 에 관심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전통, 역사, 문화에 관심을 갖는다.	
	세계 여러 문화에 관심 가지기		우리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갖 는다.	우리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갖 는다.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서로 협력해야 함을 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에 관심을 갖 는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알아보고 존중한다.	

IV. 예술경험

표 12 예술경험 영역 개정(안)

2015 누리과정 예술경험 영역				예술경험 영역(안)	
목표				1. 목표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 경험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아름다움과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 표현을 즐긴다.	
내용				1) 자연과 생활 및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2) 예술을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즐긴다. 3) 다양한 예술 표현을 존중한다.	
내용				2. 내용	
내용 범주	내용	세부 내용		내용범주	내용
		3세	4세	5세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 다양한 예술적 요소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기
	음악적 요소 탐색하기	다양한 소리, 음악의 선율, 빠르기, 리듬 등에 관심을 갖는다.	다양한 소리, 음악의 선율, 빠르기, 리듬 등에 관심을 갖는다.	다양한 소리, 악기 등으로 음악의 선율, 빠르기, 리듬 등을 탐색한다.	아름다움 찾아보기
음악적 요소 탐색하기	움직임과 춤의 모양, 힘, 빠르기 등에 관심을 갖는다.	움직임과 춤의 모양, 힘, 빠르기 등에 관심을 갖는다.	움직임과 춤의 모양, 힘, 빠르기, 흐름 등을 탐색한다.		
미술적 요소 탐색하기	자연과 사물의 색, 모양, 질감 등에 관심을 갖는다.	자연과 사물의 색, 모양, 질감 등에 관심을 갖는다.	자연과 사물에서 색, 모양, 질감, 공간 등을 탐색한다.		
예술 적 표현 하기	음악으로 표현하기	간단한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른다.	노래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노래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전래동요를 즐겨 부른다.	전래동요를 즐겨 부른다.	전래동요를 즐겨 부른다.	
		리듬악기로 간단한 리듬을 표현	리듬악기를 연주해 본다.	리듬악기를 연주해 본다.	

2015 누리과정 예술경험 영역					예술경험 영역(안)	
내용 범주	내용	세부 내용			내용범주	내용
		3세	4세	5세	예술 감상하기	다양한 예술을 감상하며 상상 하기를 즐긴다. 서로 다른 예술 표현을 존중한다. 우리나라 전통 예술에 관심을 갖고 친숙해진다.
		해 본다. 간단한 리듬과 노래를 즉흥적으로 만들어 본다. 신체를 이용하여 주변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움직임과 춤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도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다양한 미술활동을 경험해 본다.	간단한 리듬과 노래를 즉흥적으로 만들어 본다. 신체를 이용하여 주변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움직임과 춤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도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다양한 미술활동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리듬과 노래 등을 즉흥적으로 만들어 본다. 신체를 이용하여 주변의 움직임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즐긴다. 움직임과 춤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움직인다. 다양한 미술활동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협동적인 미술활동에 참여하여 즐긴다.		
	음직임과 춤으로 표현하기					
	미술 활동으로 표현하기					
	극놀이로 표현하기					
	통합적 으로 표현하기					

2015 누리과정 예술경험 영역				예술경험 영역(안)
내용 범주	내용	세부 내용		
		3세	4세	5세
예술 감상 하기	다양한 예술 감상하기	다양한 음악, 춤, 미술작품, 극놀이 등을 듣거나 본다.	다양한 음악, 춤, 미술작품, 극놀이 등을 듣거나 보고 즐긴다.	다양한 음악, 춤, 미술작품, 극놀이 등을 듣거나 보고 즐긴다.
	전통예술 감상하기	나와 다른 사람의 예술 표현을 소중히 여긴다.	나와 다른 사람의 예술 표현을 소중히 여긴다.	나와 다른 사람의 예술 표현을 소중히 여긴다.
		우리나라의 전통예술에 관심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전통예술에 관심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전통예술에 관심을 갖고 친숙해진다.

V. 자연탐구

표 13 자연탐구 영역 개정(안)

2015 누리과정 자연탐구 영역				자연탐구 영역(안)	
목표				1. 목표	<p>탐구하는 과정을 즐기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가진다.</p> <p>1) 일상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과정을 즐긴다.</p> <p>2) 생활 속의 문제를 수학적, 과학적으로 탐구한다.</p> <p>3) 생명과 자연을 존중한다.</p>
내용				2. 내용	
내용 범주	내용	세부 내용			내용
		3세	4세	5세	
탐구 하는 태도 기르기	호기심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주변 사물과 자연세계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다.	주변 사물과 자연세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갖는다.	주변 사물과 자연세계에 대해 지속적인 로 호기심을 갖고 알고자 한다.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 지속 적으로 호기심을 가진다.
	탐구과정 즐기기	궁금한 점을 알아보는 과 정에 흥미를 갖는다.	궁금한 점을 알아보는 탐구과 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	궁금한 점을 알아보는 탐구과정에 참여하고 즐긴다.	궁금한 것을 탐구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탐구기술 활용하기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탐색, 관찰 등의 방 법을 활용해 본다.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서 탐색 관찰 비교 예측 등의 탐구기 술을 활용해 본다.	탐구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각 에 관심을 갖는다.
수학적 탐구하기	수와 연산의 기초개념 알아보기	생활 속에서 수에 관심을 갖는다.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수의 여 러 가지 의미를 한다.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수의 여러 가지 의미를 한다.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여러 가 지 방법으로 탐색한다.
		구체물 수량의 많고 적음 을 비교한다.	구체물 수량의 많고 적음 을 비교한다.	구체물 수량의 부분과 전체 관계를 알아본다.	물체의 위치와 방향, 모양을 알고 구별한다.
					일상에서 길이, 무게 등의 속성

2015 누리과정 자연탐구 영역					자연탐구 영역(인)	
내용 범주	내용	3세	세부 내용		내용범주	내용
			4세	5세		
		다섯 개 기량의 구체물을 세어보고 수량에 관심을 갖는다.	열 개 기량의 구체물을 세어보고 수량을 알아본다.	스무 개 기량의 구체물을 세어보고 수량을 알아본다.		을 비교한다.
		나를 중심으로 앞, 뒤, 옆, 위, 아래를 알아본다.	위자와 방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 본다.	위자와 방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 본다.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을 찾는다.
공과 도형의 기초개념 알아보기		물체의 모양에 관심을 갖는다.	기본 도형의 특성을 인식한다.	여러 방향에서 물체를 보고 그 차이점을 비교해 본다.		일상에서 모은 자료를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기본 도형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구성해 본다.	기본 도형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구성해 본다.		도구와 기계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기초적인 측정하기	두 물체의 길이, 크기, 무게, 비교해 본다.	일상생활에서 길이, 크기, 무게 등을 비교해 본다.	일상생활에서 길이, 크기, 무게, 들이 등의 속성을 비교하고, 순서를 지어 본다.	자연과 더불어 살기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규칙성 이해하기	생활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성에 관심을 갖는다.	생활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성을 알아본다.	임의 측정 단위를 사용하여 길이, 면적, 들이, 무게 등을 재 본다.		생명과 자연환경을 소중히 여긴다.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결과 나타내기	같은 것 끼리 짝을 짓는다.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한다.	생활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성을 알고 다음에 올 것을 예측해 본다.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생활과 관련짓는다.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한다.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한다.		
			한 가지 기준으로 자료를 분류해 본다.	한 가지 기준으로 분류한 자료를 다른 기준으로 재분류해 본다.		
			한 가지 기준으로 자료를 분류해 본다.	그림, 사진, 기호나 숫자를 사용해 그래프로 나타내 본다.		

2015 누리과정 자연탐구 영역				자연탐구 영역(인)
내용 범주	내용	세부 내용		
		3세	4세	5세
과학적 탐구하기	물체와 물질 알아보기	친숙한 물체와 물질의 특 성에 관심을 갖는다.	친숙한 물체와 물질의 특성을 알아본다. 물체와 물질을 여러 가지 방법 으로 변화시켜 본다.	주변의 여러 가지 물체와 물질의 기본 특성을 알아본다. 물체와 물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화시켜 본다.
	생명체와 자연환경 알아보기	나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 진다.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 는 마음을 갖는다.	나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 관심 을 갖는다. 관심 있는 동식물의 특성을 알 아본다.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	나와 다른 사람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 알아본다. 관심 있는 동식물의 특성과 성장 과정 을 알아본다.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 는다.
	자연현상 알아보기	돌, 물, 흙 등 자연물에 관심 을 갖는다. 날씨에 관심을 갖는다.	돌, 물, 흙 등 자연물의 특성과 변화를 알아본다. 날씨와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는다.	돌, 물, 흙 등 자연물의 특성과 변화를 알아본다. 낮과 밤, 계절의 변화와 규칙성을 알아본다. 날씨와 기후변화 등 자연현상에 대 해 관심을 갖는다.
	간단한 도구와 기계 활용하기	생활 속에서 간단한 도구 와 기계에 관심을 갖는다. 도구와 기계의 편리함에 관 심을 갖는다.	생활 속에서 간단한 도구와 기 계를 활용한다. 도구와 기계의 편리함에 관심 을 갖는다.	생활 속에서 간단한 도구와 기계를 활용한다. 변화하는 새로운 도구와 기계에 관심 을 갖고 장단점을 인다.

| 토 론 |

권정윤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최혜영 (창원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엄미선 (일동유치원 원장)

김영명 (서강어린이집 원장)

정소영 (소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김선주 (죽림어린이집 교사)

박혜진 (새싹유치원 교사)

이정선 (반포퍼스티지 하늘어린이집 교사)

서현빈 (성결대학교부속유치원 학부모)

이경미 (EBS 유아교육사업 팀장)

토론문은 교육부의 의견이 아니고 개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안)」에 대한 토론문

권 정 윤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 들어가며

- 2013년부터 적용되어온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2018년 6월 개정작업에 들어가 지난 12월에 시작된 1, 2차 토론회를 거치며 재 수정작업을 통해 오늘 개정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유아교육 혁신방안에 근거한 누리과정 개정은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이라는 두 가지 주제어를 개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본 토론문은 2019 개정 누리과정안에 대하여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2. 2019 개정 누리과정(안)의 특성에 대하여

이 부분에서는 간략하게 주요 특성에 대한 언급을 하고, 아래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토론하도록 하겠다.

- 개정안에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특성을 드러내고자 노력한 점은 의미가 있으나, 여전히 놀이 중심의 용어가 주는 모호성이 남아있다.
- 누리과정의 성격을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으로 명시한 점은 진일보한 것으로 생각한다.
- 인간상을 명시하고 총론의 구성 체계를 재 조직화한 노력과 기존 누리과정 구성 체계를 유지한 것 또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 다만, ‘누리과정 5개 영역의 내용의 간략화’와 ‘평가의 간략화’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의 내용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점에서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교육과정의 간략화를 통해 누리과정의 실행력과 현장의 자율성이 강조된 점은 기관과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과 ‘다양성’ 충족을 위해 노력한 흔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장에 대한 좀 더 거시적인 안목과 더불어 미시적인 연구 및 관찰을 통한 반영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3. 누리과정의 성격 및 총론에 대하여

가. 누리과정의 성격

- 누리과정의 성격의 문구는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이다.’ 라고 제시했었던 지난 1, 2차 토론회 안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누리과정의 성격을 3-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으로 명시한 것은 교육과정 개발의 측면에서 볼 때 의미 있는 개정안으로 생각한다.
-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추구한다.’는 누리과정의 개정 방향을 드러내어 교육과정의 방향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놀이 중심이라는 문구가 의미하는 바가 해석에 따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호성이 있다.

나. 총론

- ‘2. 목적과 목표’ 중 누리과정의 목적에 대한 문구에서 ‘놀이를 통해’ 라는 구절은 누리과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단지 놀이를 통한 획일적인 수단이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누리과정 비판에서 제시된 것 또한 교육과정 적용의 획일성에 있다고 본다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누리과정의 목적이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과 바른 인성 함양으로 궁극적으로 민주 시민의 기초 형성에 있으므로, 그 수단으로서 놀이를 포함한 탐구나 탐색 등의 방법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용어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된 용어의 의미는 해석하는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총론에 놀이중심 교육이 의미하는 바를 간단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해설서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용어의 정의를 짚막하게 넣으면 좋겠다. 예) 호주의 교육과정에서 놀이기반 학습에 대한 설명
- o 현장에서는 자유선택활동이 빠지고 자유놀이의 개념이 나오면서 교사편의 위주로 교육활동이 운영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특히 연, 월, 주, 일일계획안의 용어가 빠지게 되었기에 일안 작성 기피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바란다.
- o ‘3. 구성의 중점’ 부분은 누리과정 개정에서 중점을 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독자의 관점에 맞게 문구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 구성의 중점에서 나항에 지식, 기능, 태도, 가치의 교육의 중점 요소가 포함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o 국가수준 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학습’이나 ‘배운다’와 같은 용어 사용이 적은 편이다. 교육과정에 학습이라는 용어 사용에 심리적인 어려움을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습의 사용이 어렵다면 학습 역량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권한다. 다수의 OECD 가입국의 교육과정에서 학습이라는 용어는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 o 교육과정에 교사의 역할을 어느 정도 추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사의 역량이 그 어느 개정안보다 더 중요해졌다. 따라서 누리과정에서 교사 역할을 최소 수준에서 제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o ‘1. 편성과 운영’에서
 - 다항에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는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한 것으로 다양한 교육에 대한 학부모 및 교육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와 연계한 평가의 내용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라항에 ‘...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는 독자에 따라 상대적인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충분히’와 같은 용어 보다는 좀 더 구체성을 띤 용어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 o ‘2. 교수학습’에서
 - 기존 누리과정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제시되었던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를 ‘5개 영역의 내용을 통합하여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로 변화를 주었다. 생활주제에 매몰되어 3년간 반복되는 주제 중심의 통합에

서 벗어나 다양성을 반영되도록 하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이다. ‘경험과 연계되도록’이라는 부분은 유아의 생활 속 경험과 직접 관련된 필수 생활주제를 연결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기존에 주제중심 통합교육활동 운영에 익숙한 교사들에게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것이다. 이 부분은 해설서에서 담당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 나항에 ‘유아의 자유놀이부터 교사가 계획한 활동까지’의 문구로 누리과정에서의 교수학습방법으로 자유놀이, 놀이, 교사가 계획한 활동을 언급한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자유놀이와 놀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은 해결해야 할 것이다.
- 사항에 ‘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한다.’는 최대한 개별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열린 교육과정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자율화, 개별화의 욕구 충족을 위한 노력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각론에 대하여

- o 교육과정의 내용범주와 내용을 간략화하여 제시한 점이 두드러진 변화라 할 수 있다. 기존 누리과정은 세부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5개 영역의 내용범주를 영역별 각 3개, 내용은 10~13개 정도로 조정하였다. 기존 누리과정과 비교하면 총 20개의 내용범주를 총 15개의 내용범주로 축소한 것이고, 50~61개의 내용을 총 59개의 내용으로 근소하게 수정한 것이며, 267개의 세부내용을 삭제한 것이 된다(내용에 통합 조정하기는 하였다).
- 이렇게 대폭 축소한 누리과정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활동을 계획해야 하는 현장 교사들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교사의 경력 및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 교육의 질적 수준의 다양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에 우려가 된다.
- 교육과정의 과부하 문제는 세부내용의 과감한 축소로 교육과정의 간략화를 실현하였으나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하는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게 되었다.
- o 2018년 누리과정 현장 포럼에서는 다양한 현직교사 및 전문가의 의견이 모아졌다. 누리과정에 교육과정 재구성 및 재편성에 대한 개념과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누리과정 실행력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본다.

- o ‘예술경험’ 영역의 하위 목표인 ‘다양한 예술 표현을 존중한다.’는 예술경험의 감상에 적절한 서술적 표현인지 재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안)은 놀이 중심과 교육과정의 간략화가 강한 특성으로 나타났다으므로 축소된 5개 영역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및 재편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한 해설서가 필요하다고 본다. 방대한 세부내용에 대한 비판을 받은 기존 누리과정의 경우에도 현장에서는 민간업체의 교육사이트에서 활동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교재 교구 회사의 프로젝트 관련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렇기에 대폭 축소된 개정안을 개정 취지에 맞도록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작업에 대한 요구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며 개정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균등한 출발선으로

최혜영 (창원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1. 들어가며

정부는 모든 유아에게 생애 초기동안 ‘공정한 출발선 보장’을 실현하고자 ‘국가수준의 공통과정’으로 누리과정을 제정 보급하였고, 2013년부터 전면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 3-5세 유아 중 약 93%(2018년 기준)가 취원하고 있고, 이 결과는 평등한 교육과 보육의 기회 제공 면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유아가 재원하는 환경의 질적 수준도 형평성이 보장되었는가? 실질적으로 부모의 양육과 경제적 부담도 경감되었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공교육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누리과정 개정작업이 진행되었고, ‘2019 개정 누리과정(안)’(이하 개정안)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금번 개정안을 볼 때 유아의 놀이주도, 교사의 자율성 보장, 기관과 지역의 다양한 여건 반영 등을 재차 강조하고 있고, 개정안의 내용과 평가를 간략화하고, 구성체계를 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연구진들의 수고가 보이는 대목이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모든 유아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기회인만큼, 사회적으로 합의된 인간상, 유아가 갖추어야 할 덕목, 유아의 발달수준과 안녕에 필요한 내용 등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유아, 교사, 원장, 부모, 행정가, 전문가가 보편적으로 이해 가능해야 하며, 용이하게 실행 가능해야 한다. 나아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만큼 실행자에게는 책무성이 주어져서 최소한의 선에서라도 이에 대한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 이후에도 지속가능할 수 있다.

본 토론에서는 개정안의 내용을 토대로 개정과정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구성체계 안에서 구현되어 있는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개정안을 운영할 때 개정의도를 반영하여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질문하며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정안에서 추구하는 바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 균등하게 그리고 조화롭게 구현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 본문

가. 개정안이 ‘공통과정’에서 ‘교육과정’으로 변화한 과정에서의 논의

개정안의 성격에 ‘누리과정은 3-5세 유아를 위한 국가수준의 공통의 교육과정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제시된 근본적인 변화다. 누리과정은 제정 당시(2011, 2012)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되는 가운데 ‘공통의 내용으로 구성된 과정’을 의미하였다. ‘교육과정’ 또는 ‘보육과정’이라는 용어 대신 ‘누리과정’이라고 명명하게 된 과정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후 유보통합 논의는 진행되다 중단되었고, 현재는 여전히 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되어 있다. 이 가운데 누리과정이 교육과정으로 규정된 부분은 연구진 내부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친 결과인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2017년도에 진행되었던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개정(안) 개발연구’에서도 누리과정에 대한 성격은 ‘교육·보육과정’으로 명시하였다(김은영, 강은진, 엄혜경, 2017, p. 77)¹⁾ 금번 개정안에서 전격 ‘교육과정’으로 명시된 부분에 대한 과정과 설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누리과정은 사회와 환경에 따라 시대를 반영하여 변화 가능하며, 제정 당시의 성격이 불변일수 없다. 그러나 변화를 이끄는 과정에서는 논의와 합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자명하며, 금번 개정안에서 추구하는 방향에 비추어 봐도 필요한 부분이다.

나. ‘유아 중심의 놀이’와 ‘균등한 교육 기회제공’, ‘부모부담 경감’ 간의 접점

개정안에서 유아 중심으로의 놀이를 천명한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일이다. 놀이의 주인은 당연히 유아이며 주도적인 놀이는 유아의 발달이나 학습에 최적의 기반을 제공한다. 개정안에서 추구하는 방향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놀이가 구현될 수만 있다면 최적의 상태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정안에서 의미하고 추구하는 놀이와 놀이 운영, 교사 역할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과 환경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이 해설서에 담길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나, 현재의 개정안에 제시된 내용으로는 긍정적인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1)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개정(안) 개발연구(김은영, 강은진, 엄혜경, 2017). 육아정책연구소

1) 놀이에 대한 상이한 이해

‘놀이’만큼 이해와 해석이 상이한 용어도 없을 것이다. 이 자리에 계신 전문가, 교사, 원장, 부모, 행정가에게 놀이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해석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아마 모두 다르게 이야기 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놀이하는 학습지’도 놀이의 범주에 포함시켜 활용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놀이에 대한 이해가 일관될 필요 없고 다양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할 수 있다. 맞다. 개인적으로는 그렇다. 하나 누리과정은 국가수준에서의 균등한 기회제공과 질적 수준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적용하는 과정이다.

〈표 1〉 누리과정 적용 유치원과 어린이집

(단위:개원/개소, 명)

구분	유치원1)			어린이집(3~5세)2)		
	기관	원아	교사	기관	원아	교사
국공립	4,801	172,370	12,669	2,774	113,962	8,435
사립/ 민간 외3)	4,220	503,628	33,639	13,020	452,295	34,281
계	9,021	675,998	46,308	15,794	566,257	42,716

1) 교육통계연보(2018). <http://cesi.kedi.re.kr/index> 에서 발췌

2) 보육통합정보시스템(2018)

3) 민간 외: 국공립어린이집 제외한 6개 설립유형

4) 2018년 기준 3~5세 전체 유아수: 1,334,131

표 1에서 보면 현재 93%의 유아가 지역, 설립유형, 기관규모에 따라 여건이 다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수준의 교사와 놀이하고 있다. 유치원 9000여 개원과 어린이집 15,000여 개소만큼의 다양한 여건에서 유아가 놀이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의 차이에는 질적 수준의 차이도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적 차이가 차별적 여건으로 작용하지 않으려면 교사가 자신의 학급에 대한 준비와 일과구성을 의미 있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2) 의도하지 않은 놀이경험의 격차

놀이는 개방된 공간과 개방된 환경에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때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 된다. 개정안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개정진도 이러한 놀이상황을 유아에게 돌려주고픈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유아는 학급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집단생활을 하며, 다른 연령의 학급들의 일과에 따라 놀이 시간에 영향을 받는다. 개방된 공간이 충분하고 학급의 일과를 교사가 조절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놀이경험이 일어날 수 있다. 반면 식당에서의 식사시간을 조정하거나 실외놀이를 위해 다른 학급과의 교대시간을 맞추어야 한다면 의도치는 않으나 유아는 구조화된 일과에서 놀이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놀이가 익숙하지 않은 교사가 담당하는 학급에서는 유아와 자유놀이시간을 어떻게 운영해야할지 난감한 상황도 존재할 것이다. 이는 놀이자체가 갖는 문제가 아니라 제한된 공간과 시간의 틀에서 비롯된 환경의 격차, 교사의 역량에 따라 의도치 않게 놀이경험이 차별적 경험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다양한 환경에서도 실행가능하고 펼칠 수 있는 기본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3) 놀이 중심과 부모 부담 경감 간의 접점

놀이에 대해서 갖는 전문가나 교사의 인식과 부모의 인식 간에는 온도차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부모들은 놀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는 하나 학습에 대한 요구가 큰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부모의 요구는 기관운영자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압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부모들은 자신의 요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충족되지 못할 경우 결국 개인 부담을 통한 사교육 즉 학습과 활동에 눈을 돌릴 개연성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개정안이 발표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놀이중심을 강조하게 될 때 교사와 원장 그리고 부모가 놀이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에 대하여 어떻게 상호 이해를 찾아갈 수 있을 지 논의와 가이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 ‘교사의 자율적 실행’과 ‘교육·보육 환경의 구조적 변화’

개정안에서 유아에게는 놀이를, 교사에게는 자율성을 제공하여 실행력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매우 고무적이며 교사의 효능감을 높이는 결과가 기대된다. 교사들도 유아 놀이의 중요성을 알고, 자율적으로 일과를 운영하고자 희망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충분히 관찰하고 충분히 기록하며 충분히 고민하여 유아가 주도적인 놀이가 펼쳐질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일부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자율적인 실행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유치원뿐 아니라 어린이집의 교사는 하루의 대부분을 유아와 함께 지내며

교사가 숙고하고 고민하여 자율적 운영을 실행하고 싶어도 실행불가인 상황에 놓여있다. 교사 장학이나 연수를 한 번 진행하려고 해도 유아의 낮잠시간 등의 짬을 내어 진행되는 현실에서, 연수와 컨설팅 과정을 거치며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은 교사의 역량강화 이전에 교사에게 큰 부담을 얹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놀이중심이나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이끌려 한다면 이 부분은 교사의 개인적 노력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교육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함께 따라주어야 한다. 대체교사 제공 교사 교대근무제, 팀티칭 등 교사가 적어도 학급에서 나와서 생각할 시간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면서 변화를 이끄는 작업이 필요하다. 물론 현재에도 이러한 여건이 형성된 기관에서 교사가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환경의 차이가 시간이 흐를수록 학급의 질적 수준 격차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교사양성과정과 임용고시에서의 교사선발과정이 과연 놀이를 잘하고 자율적인 교사를 선발하고 있는가에 질문을 던지고 싶다. 개정안에서 혁신을 이루고자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개정안 뿐 아니라 교사의 양성과정과 임용고시의 선발과정도 함께 혁신을 이루어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교육과 보육현장의 제반 여건에 대한 개선을 염두에 두면서 실행을 서두르기보다 유예기간을 두는 점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평가와 개정안의 효과성에 대한 접점

개정안에서 평가에 대한 축소를 통해 현장의 자율적 평가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교사의 부담 경감뿐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방향에 따라 하나의 정량평가로 인한 개정안의 효과성이 희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판단된다. 아마도 해설서에는 보다 구체적인 언급이 기대되며, 놀이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한 어떠한 형태가 되더라도 평가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평가는 개인차원으로 보면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점검하고 담당 유아의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과정평가가 가지는 특성을 고려되어야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예산을 투입한 이상 개정안에 대한 책무성을 묻는 차원에서 공정한 출발선을 보여줄 수 있는 결과가 필요한 것이다.

마. 개정안의 구성체계와 총론에 관련하여

1) 구성체계

개정안은 구성체계의 완성도를 갖추고자 성격과 인간상을 추가하고 목차를 재조직하였다. 현재의 누리과정과 개정안 그리고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의 총론의 내용을 비교해 볼 때(표 2 참조) 목차의 흐름 상 한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총론 장의 구성에 ‘구성방향(추구하는 인간상과 구성의 중점)’, ‘목적과 목표’, ‘누리과정의 운영’으로 3가지가 포함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한다. 둘째는 ‘누리과정의 구성방향’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구성의 중점’을 먼저 서술하고 이에 따른 ‘목적과 목표’가 서술되도록 순서를 교체하는 방안도 제안해본다.

〈표 2〉 누리과정 구성체계 총론의 비교

현재 누리과정 구성 체계	2019 개정 누리과정(안) 구성 체계	초중등학교 구성체계
제1장 누리과정의 총론 Ⅰ. 구성 방향 Ⅱ. 목적과 목표 1. 목적 2. 목표 Ⅲ. 편성과 운영 1. 편성 2. 운영 3. 교수·학습 4. 평가	누리과정의 성격(신설) 제1장 총론 Ⅰ. 누리과정의 구성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신설) 2. 목적과 목표 3. 구성의 중점 Ⅱ. 누리과정의 운영 1. 편성·운영 2. 교수·학습 3. 평가	교육과정의 총론 교육과정의 성격 Ⅰ.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2. 구성의 중점 3. 학교급별 목표

2) 추구하는 인간상

총론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에 건강, 자주, 창의, 감성 등 유아의 개별성에는 강조점을 둔 반면 변화하는 미래사회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경험에 대한 반영이 축소된 부분은 아쉽다. 예를 들어 환경, 기술, 민주시민으로 나아가 세계시민으로의 중요한 역량이나 사회적 가치 부분의 부족한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다.

바. ‘총괄 목표’와 ‘영역목표’ 간의 관련성

금번 개정안에서는 누리과정 총괄 목표를 누리과정 내용영역별로 서술하지 않고 각 내용 영역의 목표를 통합하여 서술하고 있다. 총괄목표와 내용영역의 목표를 포괄하거나 균형있게 서술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목표서술을 토대로 관련된다고 추정되는 내용영역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포괄적으로 서술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균형성 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듯하다. 신체운동건강영역의 신체운동과 관련된 목표서술이 드러나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이다. 유아기는 신체발달이 원활한 시기로서 건강한 신체를 형성하는 시기이다. 유아들이 장시간 기관에 머무는 상황에서 신체발달과 관련된 목표서술은 더욱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한편 개정안의 구성체계 상 목표서술은 이후 내용선정에서 중요한 방향 역할을 하게 되며, 목표에서 서술된 중심용어들은 이후 개정안의 효과성 또는 교사가 형성평가를 시행할 때 바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 표 3 〉 2019 개정 누리과정안 목표서술과 관련 내용영역 간의 관련성

목표서술	관련 내용영역
가.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사회관계, (신체운동)건강
나.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능력을 기른다.	사회관계?
다.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자연탐구, 의사소통, 예술경험
라.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예술경험, 사회관계
마.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자연탐구, 사회관계, 의사소통

사. ‘3-5세 연령통합 내용서술’과 유아의 개별적 수준 간의 접점

금번 개정안에서 3~5세의 연령을 통합하여 내용을 서술하였다. 내용체계에서 내용영역=>내용범주=>내용으로 설정하여 기존의 연령별내용과 세부내용도 통합하였다. 연령별 과정이었던 것이 다시 연령통합과정으로 개정된 것이다. 이 부분은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이라고 표방한 개정 방향의 중점에 비추어 볼 때 일관된 서술이라고 판단된다. 문제는 실행과정에서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술경험이나 사회관계 영역 같이 연령별 구분이 질적으로 차이가 나기보다 연속적인 변화를 가지는 부분은 통합된 내용으로 실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다. 반면 3세와 5세아 간 발달적으로나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거나 교과내용의 위계적 차이가 있는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자연탐구영역의 실행에서는 통합된 내용을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예견된다. 교사가 활동을 계획할 때 오히려 유아 각각 수준에 맞는 개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고, 혼합연령반의 교사에게는 더욱 고민이 될 수 있겠다. 개정안에서 교사에게 자율권을 보장하겠다는 의도가 금번 개정안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면 어떠한 그림인지 반드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각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신체운동·건강의 경우 운동과 관련된 목표서술이 되어 있지 않다. 유아기의 신체발달 또는 기본운동과 관련된 목표가 ‘신체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로만 설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의사소통영역에서 책과 이야기 즐기기가 포함된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예술경험 영역의 목표에서 감상과 관련한 내용의 서술이 드러나지 않는다. 감상에서 중요한 점은 감성과 심미감 발달이며 이는 영유아기부터 발현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자연탐구영역에서는 과학이 주로 자연으로 수렴되고 있는데 자연탐구에서는 과학과 기술, 환경, 기후 등 5세 유아라면 자신의 일상에서도 충분히 전개될 수 있는 내용들임에도 누락된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

아. 개정과정의 체제 구축

이번 개정안에서 내용과 실행에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변화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개정작업 과정 자체이다. 단기간의 개정작업과 교사연수를 예상하고 있고, 2020년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는 듯하다. 유치원교육과정 변천 50년, 표준보육과정 변천 12년을 통틀어 이 과정에는 변화가 없다. 사실 현재의 개정안에서 추구하는 방향으로 현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자 한다면, 적어도 3~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교사양성과정과 기존 교사의 연수를 통해서 점진적인 혁신이 일어나도록 계획해야 한다. 혁신이 내용조절과 교사연구로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교사의 사고와 행동, 현장의 환경 변화, 행정 지원 등이 수반되는 과정이어야 할 것임에도 여전히 이전의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자. 후속작업

개정안의 후속작업으로 해설서, 지침서, 지도서(?)의 개정 작업이 급박하게 이루어지리라 본다. 이 과정에서 책무성과 이에 따른 실행지침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금번 개정안에서 지적하였듯이 지난 누리과정의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교사가 지도서에 의존하여 실행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연유로 금번 개정안에서는 교사가 지도서에 의존하지 않도록 고시문을 통해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짚어야 할 점은 교사의 의존적인 실행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에 대한 파악이다. 지난 유아교육과정 발달사 어느 문서에도 교사에게 획일적인 실행을 권장한 기록은 없다. 지난 누리과정에서 제시한 지도서를 포함하여 이전에도 지도서는 있어왔고 예시도 담겨 있었다. 그러나 누리과정 이전 시절에는 교사들이 지도서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었다. 이에 대한 책무성을 가지지 않았으므로 권장사항으로 존재하다 사장되곤 하였다. 그러나 누리과정이 무상교육으로서의 첫 공통과정이 되면서, 이에 대한 책무성을 잘 알고 있는 교사들은 누리과정 실행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지도서를 참조한 결과 누리과정이 획일적이라는 논리적 비약과 함께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번 개정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제로 개정안에서 추구하는 참 의미인 교사의 자율성과 유아의 놀이 중심되기를 기원한다. 만약 교사연수와 개정안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교사는 다시 고민을 할 것이며 재야에서 상업용 유사 지도서가 탄생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3. 마치며

금번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통해서 기대하게 되는 바가 크다. 유아에게 놀이를 강조하며 교사의 자율성을 추구한 부분은 매우 공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연구진의 의도와 노력이 교육과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 및 부모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나머지 개정기간동안 서술의 명료성과 실행의 용이성 등을 갖추어가는 과정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4차산업혁명시대의 유아교육의 방향 -2019 개정 누리과정(안)에 대한 토론-

엄미선(일동유치원 원장)

I. 들어가며

4차 산업혁명이 시대적 화두가 되면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를 고민하여 본다. 우리나라 국가수준 유치원교육과정은 1969년 「1차 유치원교육과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아홉 차례에 걸쳐 개정, 고시되었다. 국가수준 보육과정은 2007년 1월 제정된 이후, 2012년과 2013년의 두 차례 개정, 고시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보통합 정책의 출발점으로 2013년 3월부터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에서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만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에서는 0-2세 보육과정과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있다.

‘누리과정’이 제정 공포된 지 7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누리과정의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어 왔다(김남희, 2010; 김희연, 정선아, 오문자 2012; 박은혜, 신은수, 조형숙, 2012; 임부연, 2015; 정지현, 2011; 최연철, 2007).

유아교육과정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개발되기 보다는 오랫동안 현장에서 실행해 온 내용과 방법이 유아교육과정의 구성과 내용을 만드는 근간이 되어왔고, 초창기 유아교육과정의 내용과 방법이 곧 현재 유아교육의 정전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박민정, 2005; 박순경, 1997). 따라서 현재 누리과정의 성격과 구조, 내용과 방향을 점검해 본다는 것은 유아교육과정 전체의 뿌리를 재검토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 이제 누리과정의 가장 큰 당면문제는 현재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이 가진 여타의 문제와 혼선을 점검하고, 미래사회에 요구하는 진정한 창조적 인간 양성을 위하여 어린 시기 가장 필요한 진정한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회복해 가는 일이다. 특히 우리나라 학교교육이 수능, 학문중심의 파행적 학교교육과정을 정상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볼 때 유일하게 인간본성으로서 놀이를 교육과정에 담고자 한 유아교육과정의 숭고한 이념을 지켜내고, 진정한 ‘놀이중심 유아교육과정’을 통한 유아교육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7년 5월 시작된 문재인 정

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정과제 50번으로 ‘공교육 혁신’을 명시하였고, 세부과제중 하나로 학생중심 교육과정 개편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유아와 초등학교의 적정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법제화 내용이 제안되었다. 교육부는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누리과정 혁신방향을 유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자유놀이 권장, 현장의 자율성 확대 등을 통하여 기존의 누리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내용들을 포함하여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 보다 완성된 체계를 갖추어 개정(안)을 개발하게 된 연구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II. 2019 개정 누리과정(안)의 특성을 살펴보면

1. 유아중심·놀이중심

아이들이 유아교육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기관에 다니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일과를 보다 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2019 개정 누리과정(안)」은 유아교육의 기본 정신인 ‘놀이’를 중심으로 유아들의 배움을 지원하는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재정립하고자 ‘자유놀이’를 강조하고 ‘놀이시간’을 충분히 명시한 부분과 이를 통해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에서 강조하는 놀이와 씬, 학습자의 즐거운 배움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의 방향을 통일감 있게 추진하고자 함에 공감을 가져본다.

2. 누리 과정 성격을 공통의 교육과정으로 명시

누리과정의 성격을 국가수준에서 고시한 공통의 교육과정으로 명시하여 그동안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이라는 차원에서 교육과 보육의 목적이 각각 서술됨으로서 가져온 혼란을 최소화 하였다는 점이다.

3. 인간상을 명시하여 총론의 구성체계 확립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서 누락되었던 인간상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인간상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명시하여 누리과정이 교육과정으로서 전체 구성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21세기 미래 지향적 인간을 길러내기 위한 역량을 반영하여 인간상을 제시한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성 측면을 적극 반영하였다.

4.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구성체계 유지 및 5개 영역 내용 간략화

유아중심 및 놀이중심을 강조한 「2019 개정 누리과정(안)」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기본 구성 방향과 구성체계를 가능한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영역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며, 5개영역의 내용구성에 있어서 연령별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또한 「2019 개정 누리과정(안)」에서는 3-5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최소한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며, 내용범주를 영역별 3개정도로 조정하고 특히 연령별로 제시한 세부내용의 핵심요소를 내용과 통합 조정하여 59개의 내용으로 간략화 하여 교원의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획일적 운영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데는 큰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교사의 자율연수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한 전문적 자질이 보장되고 유치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치밀하고 꼼꼼하게 계획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5. 누리과정 실행력과 현장의 자율성 강조

누리과정을 적용하면서 교육내용도 많고 지도서 활동도 많아 힘들었다는 현장의 의견을 감안하여 보면 「2019 개정 누리과정(안)」이 전국 공통으로 어디에서든 지역적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교사들의 부담은 덜어질 듯싶다. 그러나 현장의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교사의 역량을 키워가는 데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만큼 행정적인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인력배치 또한 함께 동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험과 놀이를 강조하여 현장교사가 지도서가 아닌 고시문을 통해 보다 수월하게 교육과정을 실행할 수 있는 누리과정 실행력 고취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는데 현장교사들의 역량에 따라 시사하는 바가 크다.

Ⅲ. 「2019 개정 누리과정(안)」

1. 성격(신설)

누리과정은 3-5세 유아를 위한 국가수준의 공통교육과정이다.

가. 국가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기관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나. 유아중심과 놀이 중심을 추구한다.

다.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한다.

라.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추구한다.

마. 유아, 교사, 원장(감),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 가는 것을 추구한다로 기술하였다. 이는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성격을 담고 있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조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2. 총론

가. 추구하는 인간상(신설)

- 1) 건강한 사람
- 2) 자주적인 사람
- 3) 창의적인 사람
- 4) 감성이 있는 사람
- 5)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기술하였으며,

나. 목적과 목표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인성을 바르게 하며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살펴보면,

- 1)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르며,
- 2)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능력을 기르고,
- 3)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며,
- 4)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 5)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며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2015 누리과정 목표기술에서는 5개영역의 목표가 명확히 기술되었으나, 개정(안)에는 목표 진술이 조금 애매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다.

다. 구성의 중점

- 1) 3-5세 모든 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 2)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여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 3)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영역을 중심으로
- 4) 3-5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최소한의 내용으로 구성하며
- 5) 0-2세 보육과정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내용을 2015 누리과정 방향의 내용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3-5세 모든 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모호성이 우려된다.

라. 편성·운영

- 1)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하며,
- 2) 일과운영에 따라 확장하여 편성할 수 있고,
- 3)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 4) 하루 일과에서 바깥놀이를 포함하여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 운영한다.
- 5) 성, 신체적 특성,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으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하며,
- 6) 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
- 7)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한다.
- 8) 교사 연수를 통해 누리과정의 운영이 개선되도록 한다.

편성·운영에서는 교사연수를 통해 누리과정의 운영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인 연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 교수·학습

- 1)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
- 2) 유아의 자유놀이부터 교사가 계획한 활동까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
- 3) 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한다.
- 4) 유아와 유아, 유아와 교사, 유아와 환경 간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5) 5개영역의 내용을 통합하여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
- 6) 개별 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7) 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한다.

자유놀이가 곧 유아의 학습이며 흥미와 관심에 따라 참여하고 즐기도록 하며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유아놀이 관찰을 통해 놀이를 지원하고 교사와 유아의 발문을 지양, 교사는 유아의 자유놀이를 관찰, 지원하는 방식의 상호작용을 지향해야 한다.

바. 평가

- 1) 누리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한다.
- 2) 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와 누리과정의 운영을 평가한다.
- 3) 평가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 4) 평가의 결과는 유아의 대한 이해와 누리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평가의 목적이 유아의 관점에서 정의되고 유치원에 대한 통제에서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문서 위주가 아닌 현장의 실천중심 평가를 지향하여 놀면서 배우는 유아의 삶의 가치를 반영하고, 유아의 놀이가 살아나고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평가로 전환되어야 하며, 유아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유아의 자유놀이가 중심이 되는 평가로 전환되어야 하나, 평가내용 기술이 현장교사들에게 다소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IV. 영역별 목표 및 내용

1. 신체운동·건강

목표기술을 살펴보면, 2015 누리과정에서는 기본운동 능력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에서 첫째, 감각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둘째, 신체를 조절하고 기본운동 능력을 기른다. 셋째, 신체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넷째, 건강한 생활습관을 기른다. 다섯째,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른다고 제시하고 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안)」에서는 실내외에서 신체활동을 즐기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한다고 되어 있으며 3개의 목표 첫째, 신체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둘째, 건강한 생활습관을 기른다. 셋째,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른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내용범주도 신체인식하기, 신체조절과 기본운동하기,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의 범주와 내용도 많이 축소되어 신체활동 즐기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의 내용범주로 되어있다. 세부 내용은 소근육 활동 내용 등 안전하게 생활하기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의사소통

목표기술을 살펴보면, 2015 누리과정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른다에서 4가지 목표 첫째,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태도와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둘째,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하는 능력을 기른다. 셋째, 글자와 책에 친숙해지는 경험을 통하여 글자 모양을 인식하고 읽기에 흥미를 가진다. 넷째, 말과 글의 관계를 알고 자신의 생각, 느낌, 경험을 글로 표현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고 제시되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안)」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상상력을 기른다고 되어 있으며 3가지 목표 첫째, 일상생활에서 듣고 말하기를 즐긴다. 둘째,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진다. 셋째,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 상상하기를 즐긴다고 되어 있으며 4개의 내용범주에서 3개의 내용범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술내용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다.

3. 사회관계

목표기술을 살펴보면, 2015 누리과정에서는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에서 5가지 목표 첫째,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자율성을 기른다. 둘째,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알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조절한다. 셋째,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며 서로 협력한다. 넷째, 친구, 공동체 구성원들과 서로 돕고, 예의규칙 등 사회적 가치를 알고 지킨다. 다섯째, 우리동네,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 관심을 가진다로 되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안)」에서는 자신을 존중하고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가진다로 되어 있으며 3가지 목표 첫째,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둘째,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낸다. 셋째, 우리가 사는 사회와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로 되어 있으며 5개의 내용범주에서 3개의 내용범주를 제시하고 있고, 기술 내용 또한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어 현장의 교사들의 접근이 용이하다고 생각한다.

4. 예술경험

목표기술을 살펴보면, 2015 누리과정에서는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경험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에서 3가지 목표 첫째, 자연과 주변 환경에서 발견한 아름다움과 예술적 요소에 관심을 갖고 탐색한다. 둘째,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음악, 움직임과 춤, 미술, 극놀이를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즐긴다. 셋째, 자연과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며, 풍부한 감성과 심미적 태도를 기른다로 제시되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안)」에서는 아름다움과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 표현을 즐긴다라고 되어있으며 3가지 목표 첫째, 자연과 생활 및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둘째, 예술을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즐긴다. 셋째, 다양한 예술 표현을 존중한다로 각각 3개의 내용범주를 제시하였다. 내용도 현장 교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술되었다.

5. 자연탐구

목표기술을 살펴보면, 2015 누리과정에서는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세계를 탐구하며, 일상생활에서 수학적·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에서 3가지 목표 첫째, 주변의 사물과 자연 세계에 대해 알고자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태도를 기른다. 둘째, 생활 속의 여러 상황과 문제를 논리·수학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초 능력을 기른다. 셋째, 주

변의 관심 있는 사물과 생명체 및 자연현상을 탐구하기 위한 기초능력을 기른다고 제시되어 있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안)」에서는 탐구하는 과정을 즐기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가진다고 되어있으며 3가지 목표 첫째, 일상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과정을 즐긴다. 둘째, 생활 속의 문제를 수학적, 과학적으로 탐구한다. 셋째, 생명과 자연을 존중한다고 되어 있으며 각각의 내용범주는 3개씩 제시하고 있으며, 내용 또한 현장 교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제시되었다.

V. 나가며

급속히 변화하는 정치 문화 속에서 실행된 지 7년째에 접어든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놀이와 씬’ ‘유아중심-놀이중심’을 강조하는 혁신방안을 접하게 되었다. 이번 누리과정 개정으로 유아의 자유놀이가 살아나고 교사와 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이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교육공동체 안에서의 유아교육이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이정옥(2018). 미래사회를 위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개정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8(1), 19-35.
- 문무경(2016). 전문가 의견 분석을 통한 누리과정 개편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이슈페이퍼 2016-12.
- 나귀옥·김경희(2012). 누리과정 실행에 따른 유아평가의 방향 탐색. 유아교육연구, 32(4), 465-492.

보육현장에서 보는 2019 개정 누리과정(안)

김 영 명 (서강어린이집 원장)

1. 유아는 어떤 존재인가?

2019 개정 누리과정(안)에서는 놀이를 중심으로 유아들의 배움을 지원하는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재정립하고자 자유놀이를 강조하고, 놀이시간을 충분히 편성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놀이가 많이 부족한 유아들에게 놀이중심은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마음껏 뛰어노는 유아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저 또한 행복한 어린이집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유아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 유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보다 다양한 규정을 하지 않았기에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을 강조하면서도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이라는 말이 누리과정 전체를 포괄하는 힘이 약화되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유아 중심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유아기의 특성과 유아들의 욕구가 무엇인지에 보다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 사람들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존재, 놀이를 하는 존재,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존재,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존재, 의사존중과 의사결정에의 참여와 같은 참여권을 비롯한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존재 등... 유아의 이 같은 특성들을 전제로 누리과정의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누리과정을 운영하면서 ‘유아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실천이 더 보완되어야 하는지가 다소 불명확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아동 중심’이라는 말에 많이 익숙해져 있고 그 동안의 실천 또한 ‘아동 중심’의 실천을 지향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개정 누리과정을 실천하면서 ‘유아 중심’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며 이전의 실천과는 무엇이 다른 걸까요? 일차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시간을 보다 더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개정 누리과정의 성과는 지대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의 방향과 목표를 좀 더 명료하게 하고 현장에서의 실천을 개선안에서 제시하는 방향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견인해가기 위해서는 유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과 제시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은 기존의 이론과 생각, 경험에서 나오는 유아교육의 내용과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과 유아들이 살아갈 미래에 기초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 누리과정을 내놓기에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동안 다양한 집단이 자신들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서로 논쟁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보다 좋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애써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아교육과정에 대한 모색과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활과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학습을 강조하던 나라들에서도 유아의 생활상과 유아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제각각 새로운 시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은 현재에 존재하고 있는 미래이기에 사회의 변화와 유아들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어떻게 교육과정에 반영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화두라 생각되며 우리 나름의 새로운 접근과 시도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감성이 있는 사람

추구하는 인간상 중 ‘감성이 있는 사람’은 감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유아기에 필요한 역량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감성이 있는 사람’은 표현에 모호함이 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자극이나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성질’, ‘이성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외계의 대상을 오관으로 감각하고 지각하여 표상을 형성하는 인간의 인식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타의 사전에서도 감성은 이와 유사하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등은 모두 그렇지 않은 사람과 대비되어 어떠한 일상의 실천으로 연결되어야 하는지가 와 닿는데 비해 ‘감성이 있는 사람’은 ‘감성이 없는 사람’과 대비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일종의 법이나 규정과 같이 보육·교육 현장과 학부모에게까지 명료하게 의미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감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표현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3. 총론과 영역별 목표 및 내용의 불일치

제1장 총론에서 제시하는 사항들을 제2장 영역별 목표 및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제1장 총론에서는 유아중심, 놀이중심, 행복 추구,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 등이 새롭게 신설되어 강조되고 있으며, 누리과정의 운영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제2장 영역별 목표 및 내용은 기존의 내용을 축소시키는데 머물러 있다고 보입니다.

“실내놀이에서 유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쌓기놀이는 어디에 관련이 되는 걸까?”

“유아들이 즐겨하는 보드게임은 어떤 것과 관련이 되는 걸까?”

“유아들이 팽이놀이를 계속하는데 그건 어떤 영역이나 범주와 관련될까?”

“흙이 있는 곳만 가면 땅바닥에 주저앉아 이런 저런 놀이 하는 것을 즐기는데 그건 어디에 해당되지?”

자연탐구 영역 중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의 내용은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한다.’ ‘물체를 세어 수량을 안다.’ ‘물체의 위치와 방향, 모양을 알고 구별한다.’ ‘일상에서 길이, 무게 등의 속성을 비교한다.’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을 찾는다.’ ‘일상에서 모은 자료를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도구와 기계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로 되어 있습니다. 물체의 특성과 변화에 대한 다양한 탐색에 해당되는 것은 하나로 묶고 유아들의 실제 생활과 놀이 상황을 반영하는 내용들을 보완하여 구성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결합했다 해체했다를 반복하면서 새로운 구성물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쌓기놀이의 본질적 특성을 반영하는 내용, 단순히 세고, 알고, 비교하고, 분류하는 것만이 아니라 도전적이며 전략적인 사고와 결합되어 있어서 즐기게 되는 게임, 뛰고 노는 것도 좋아하지만 땅바닥에 붙어서 노는 것 또한 매우 좋아하는 유아들의 놀이 실체가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유아들이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며, 모든 유아는 자신의 발달에 유리한 경험을 선호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누리과정은 기존의 틀에 유아들의 경험을 맞추거나 절충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아들이 정말 어떤 경험을 선호하고 어떤 놀이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길 원하는지 아이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top-down 방식인 영역별 목표와 내용을 아이들의 생활과 놀이가 교육과정을 형성하게 하는 bottom-up 방식으로 전환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개 나라의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든 생각은 각 나라가 제각기 다른 고민을 통해 매우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은 유아기 아이들의 실제 생활과 경험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개정 누리과정은 현재 우리가 선

택할 수 있는 최선이라 할 수 있지만 향후의 개정은 이러한 점이 고려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뉴질랜드의 교육과정과 개정 전 핀란드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일부 내용입니다.

○ 뉴질랜드의 국가수준 영유아교육과정

0세부터 8세까지의 아이들이 발달하는데 필요한 것은 능력이 다른 나이의 아이들과는 다르다. 그래서 유아기 커리큘럼과 나이가 많은 학생들의 커리큘럼에 접근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유아기의 커리큘럼은 유아들의 발달과 변화하는 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어른이나 또래 등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 핀란드의 영유아 교육과정

교사가 아이들과 상호작용하고 논의하며 **아이들의 활동을 관찰함**에 따라 아이들의 세계와 사고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ECEC는 영유아와 교사공동체의 활동과 ECEC 환경을 관찰하면서 전체적으로 개발됩니다.

유아의 고유한 행동 방식(놀이, 신체활동, 예술적 경험과 자기표현, 탐구)은 교사가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고려되며 교사 공동체가 아이들과 상호작용할 때 지표가 되는 원칙으로써 사용됩니다.

핀란드의 교육과정에서는 먼저 유아의 행동방식으로 놀이, 신체활동, 예술적 경험과 자기표현, 탐구를 배치하고 내용 방향성(오리엔테이션)에 수학적 방향성, 자연과학 방향성, 역사적-사회적 방향성, 예술적 방향성, 윤리적 방향, 종교-철학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아의 행동방식이 유아들의 일상 경험이 되도록 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은 유아들이 그 자체를 경험한다기보다는 교사가 어떤 종류의 경험과 상황을 지향하고, 윤곽을 잡아가고 기회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뼈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4.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명료하게 제시

향후 누리과정의 실천 과정에서는 현장에서 보다 자유롭게 다양한 실천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명료하게 제시함으로써 현장에서 그동안 진행해왔던 놀이중심도 유아중심도 아니며, 발달에 적합하지도 않은 실천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 지나치게 꼼꼼하고 촘촘한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1년에 12개의 대주제, 48개의 소주제, 1,000개 이상의 활동을 수행하면서 무더운 여름과 겨울에도 융통성 없이 일관되게 진행해왔던 누리과정의 실천을 개선해야 합니다.
2. 자유선택활동이라고는 하지만 선택할 자유를 주지 않고 모든 흥미영역에서의 활동을 의무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경우 또한 진정한 자유놀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합니다.
3. 유아가 원하는 놀이를 실내외에서 자유롭게 장시간, 장기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주제에 따라 놀이와 활동이 쉽 없이 변화되는 경우 또한 개선되어야 합니다.

5. 개발 과정에서 집단 지성 발휘하기

누리과정의 개정 과정에서 교사와 원장들이 ‘언젠가는 개발되어 우리에게 주어지겠지’, ‘뭐가 얼마나 바뀔까?’라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그동안 누리과정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장점과 문제의식,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능동적 참여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이 아쉽게 생각됩니다. 일반인의 생활 속에 만연해 있는 인터넷과 SNS를 활용해서 공개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가지는 것이 요구됩니다.

차후에 있을 교육과정의 개선이나 실천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수많은 경험의 보고인 교사와 원장, 누리과정의 중요한 파트너인 부모가 수동적인 입장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아의 주도성을 살리고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 누리과정이라면 개정과정에서부터 교사와 원장, 부모가 자신들의 주도성을 발휘함으로써 유아의 주도성을 어떻게 살려나갈 수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잠재적 교육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놀이로, 유아교육을 다시 세우자

정 소 영 (소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1. 「2019 개정 누리과정(안)」 토론에 들어가며...

현장 교사로서 2019 개정 누리과정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 또한 「2019 개정 누리과정(안)」이 나오기까지 수고하신 교육부 관계자와 연구진들께 감사사를 드린다.

지난 2017년 12월 교육부의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유아 중심·놀이 중심의 교육과정 혁신방안’ 발표는 현장교사들에게 많은 기대감을 갖게 했다. 아마도 누리과정의 현장 적용상의 어려움들을 가장 절실하게 알고 느낀 것은 다름 아닌 현장 교사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놀이가 전부인 아이들의 삶에 진짜 놀이가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누리과정을 해야 해’라는 당위성과 함께 지식위주의 지나치게 세부적인 누리과정 내용들이 점차적으로 진짜 아이들의 놀이를 사라지게 했다고 생각된다. 과연 이게 아이들의 발달에 맞는 것인가? 그리고 이런 교육내용들이 과연 아이들의 삶과 연계된 배움을 만들어 가는가? 놀이인가? 학습인가? 하는 고민들을 현장 교사들을 많이 할 수 밖에 없었다.

놀이는 아이들의 삶이라고 한다. 그런 면에서 유아중심·놀이중심이란 용어가 누리과정 개정의 중심에 놓여 있는걸 보니 놀이에 몰입하며, 즐겁게 배움을 이어갈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지금부터는 「2019 개정 누리과정(안)」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수정되어야 할 부분 그리고 주체들의 역할과 제언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2. 「2019 개정 누리과정(안)」 배경 및 특성

가. 「2019 개정 누리과정(안)」 배경 및 절차

□ 유아교육 혁신방안 발표

- ‘유아의 개별적이고 다양한 특성 고려, 유아의 자유놀이 권장, 현장의 자율성 확대’ 등

의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의 혁신 방향 제시함.

- ☞ 2019 개정 누리과정(안)의 배경에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 보다 완성된 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하고 노력한 과정이 담김.

나. 「2019 개정 누리과정(안)」의 특성

- 유아중심·놀이중심 추구: 놀이와 씬, 학습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방향이 드러남을 알 수 있음.
 - ☞ 유아들의 배움 지원, 자유놀이, 놀이시간 충분히 편성 등의 문장 명시
 - ☞ 교육의 주체를 유아로 명시하고, 교사를 계획·가르치는 사람에서 유아들의 배움을 ‘지원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여 명시함
- 누리과정 성격을 공통 교육과정으로 명시
- 인간상을 명시하여 총론의 구성 체계 확립: 초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전체 구성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 노력이 보임.
- 3~5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최소한의 내용으로 구성, 내용 간략화 함. 그러나 경험해야 할 ‘최소한의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우려되는 지점임.
- 평가의 간략화: 현장 중심의 자율적 평가가 실행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임.
- 전체적으로, 유아에게 주도권을 돌려줌으로써 유아·교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강조함.

3. 「2019 개정 누리과정(안)」

가. 누리과정의 구성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 추구하는 인간상의 신설로, 교육과정으로서의 구성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과 동시에 초·중등과의 연계성을 적극 반영함.
- ‘건강한 사람’을 제일 처음 제시함으로써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명시하였음.
- 유아중심, 놀이중심, 자율성, 창의성, 전인발달, 행복추구 등 용어 사용이 매우 적절하게 명시됨.

- 성격의 ‘마’ 부분에서 함께 실현해 가는 것을 추구하는 내용에 유아-교사-원장(감)-학부모-지역사회 등 교육주체들을 나열하지 말고, 교원으로 수정해야함.

2) 목적과 목표

- 목적에서 ‘놀이를 통해’를 명시함. 단,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등에서 ‘심신’이라는 용어는 유아보다는 성인에 맞는 용어로 생각됨. 따라서 ‘몸과 마음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처럼 유아에 맞는 용어로 변경했으면 함.
- 구체적이고, 시대 요구적인 용어인 ‘상상력’과 ‘창의력’이 새롭게 제시됨.
- ‘일상’을 강조하였고, ‘문화적 감수성’이라는 용어 제시를 통해 초등교육과정에서의 교양 있는 사람을 유아교육의 수준으로 전환하여 제시함.
- 전반적으로 사용된 용어가 유아의 수준에 맞게 제시되었고 구체적이어서 좋음.

3) 구성의 중점

- ‘나.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여 구성한다.’의 내용에서 지식, 기능 태도, 가치 등의 용어 사용에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라. ‘3-5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최소한의 내용으로 구성한다’는 부분에서 ‘최소한의 내용’이라는 용어의 삽입에 대한 좀 더 고민해 봤으면 함. 최소한의 내용으로 한다는 것은 공통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을 명시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 누리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처럼 ‘획일성’에 대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봄. 예)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가르쳐라??? 그렇다면 이는 유아와 교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요소이므로, 본래 취지의 위배됨.

나. 누리과정의 운영

1) 편성·운영

- ‘다.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지역과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로 기술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구성 보장과 자율성 확대하였음.

2) 교수·학습

- ☐ ‘나. 유아의 자유놀이부터 교사가 계획한 활동까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는 ‘교사가 계획한 활동’까지 삽입은 상위 내용에 자율성을 강조한 것과 모순된 내용이고, 누리과정 개정안의 전체 흐름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개정의 정신을 크게 훼손함. (★)
- ☐ ‘마. 5개 영역의 내용을 통합하여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는 것은 자칫 주제 중심으로 하자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교육과정 개정의 의미를 상실함.

3) 평가

- ☐ 이전과 다르게 평가의 목적, 대상, 방법 활용 등 평가의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문장표현을 간략히 하여 제시된 점이 매우 좋음.
- ☐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를 통해 문서화된 평가가 아니라, 지역 및 유치원의 실정에 맞게 평가 방법을 다양화하여 현장의 자율성을 강조한 점과, 일상에서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것이 평가임이 내포되어 있어 좋음.
- ☐ 다만, 누리과정 성격을 ‘공통 교육과정’이라 하였으니, 누리과정이 아니라 용어의 통일성이 있어야 하며, ‘가’와 ‘나’의 중복된 내용을 통합하면 좋겠음.

다. 누리과정 개정(안) 영역별 목표 및 내용

- ☐ 지나치게 자세한 내용으로 인한 교육내용과 방법에 제약이 있었는데 세부내용이 삭제되어 교사의 자율성을 확대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 유아가 흥미를 느끼는 일상에서의 소재와 경험을 중심으로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가능케 하는 방향임.
- ☐ 누리과정 내용 범주는 영역별 각 3개로 내용은 신체운동·건강 (12개) 의사소통(12개) 사회관계(12개) 예술표현(10개) 자연탐구(13개)로 되어 있는데, 이중 자연탐구의 내용이 가장 많은 이유가 궁금함.(★)

4. 제언

진짜 놀이로, 유아교육을 다시 세우려면...

첫째, 어린이의 놀 권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놀이는 삶 그 자체이다. 놀아도 놀아도 아이들은 ‘아~~’하며 아쉬움을 토로한다. 아이들의 입에서 더 놀고 싶다는 말은 지금의 놀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이고, 허기지듯 놀이가 고프다는 이야기이다. 지금까지 어른들이 강조한 놀이 속에는 아이들이 놀이의 주인이 아닌 적은 없다. 하지만 진짜 아이들이 놀이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한다. 그리고 이제라도 우리는 아이들에게 놀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놀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주어야하고,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 마음껏 웃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놀이의 핵심은 주도성과 재미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유놀이부터 교사가 계획한 활동까지 놀이를 통한 배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교수학습의 내용은 우려되는 지점이다. 즉 놀이를 학습의 조건, 학습의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가 우리나라에 권고한 어린이의 놀 권리는 학습을 배제한 주도성과 재미가 있는 그야말로 놀이를 의미한다. 자칫 해석의 오류로 아이들에게 놀 권리를 준다고 하면서 학습을 가장한 놀이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둘째,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교사의 책임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유아와 교사는 더불어 성장하는 존재이다. 아이들이 놀면서 배우듯 교사는 아이들을 온전히 바라보며 배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아이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교사가 점차 전문성의 옷을 갖추어나갈 때 비로소 온전히 보이게 유아를 온전히 관찰하게 될 것이고, 유아가 어느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고 주저하는지를 발견하고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육의 주체를 유아로 명시하고, 교사를 이전의 계획·가르치는 사람에서 유아들의 배움을 ‘지원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여 명시하였다. 교육의 주체인 유아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유아들의 배움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사들은 책임감을 갖고 전문성을 갖추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교사를 지원하는 행정업무지원시스템과 함께 맞물려 지원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셋째, 관리자의 민주적인 리더십과 역량강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유아 및 교사의 자율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민주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유아들은 교사나 학부모가 믿어줄 때 자신들의 놀이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 교사도 마찬가지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자들은 교사를 신뢰하고 지원하는 역할로 전면 전환하여야 한다. 누리과정의 성격처럼 함께 실현해가는 것을 추구해 가도록 관리자의 민주적인 리더십과 역량강화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관리자 또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놀이에 대한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학부모-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신뢰하고 동반자로서 함께 할 때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처럼 학부모를 교육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조력자’라고 보는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유치원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놀이와 쉼이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는 아이들의 온전한 놀이터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지원청은 현장 지원에 있어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자율 연수 등을 적극 지원해 주고, 현장의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 또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현장 교사들이 온전히 유아들과의 삶에 집중하도록 학교업무 지원을 활성화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5. 나가며....

「2019 개정 누리과정(안)」이 현장에 안착되려면, 누리과정 개정(안)은 교사와 유아,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며, 국가수준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이라는 성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에 따른 교사들의 역할과 책임성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2019 개정 누리과정(안)」이 고시된다면 관리자, 교사들에게 교육과정의 방향과 책임성에 관한 지속적인 설명회가 필요하고, 올바르게 방향을 잡고, 현장에 안착되도록 이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교육부의 정책적인 홍보를 통해 개정된 누리과정에 대한 교사 뿐 아니라 학부모-사회 전반의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은 교실에서 자율적으로 주어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다. 이전의 획일성을 버리고, 자율성이라고 옷으로 온전히 갈아입기 위해서는 놀이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배움에 관한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놀이의 주인인 아이들에게 놀이를 온전히 돌려주고, 진짜 놀이의 주인으로 살아가도록, 교사-학부모-교육행정당국 등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현장 교사로서 아이들을 생각하며, 많은 시간을 「2019 개정 누리과정(안)」이 나오기까지 수고하신 교육부 관계자와 연구진들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

진정한 놀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

김 선 주 (죽림어린이집 교사)

모두가 알고 있듯 아이들은 놀이하며 배운다. 놀이를 통해 감정, 언어, 사회성 등이 발달된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놀이 할 공간이 부족하고, ‘놀려고 학원 간다.’는 말이 있듯, 놀이할 대상을 찾기 어렵다. 그리고 놀이터에서 놀이 하고 싶어도 부모님들이 바빠 같이 나가지는 않고 또 아이들을 혼자 내보내어 위험요소(차, 사람, 동물)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 또한 놀이를 보고 배울 형, 누나가 없는 아이들이 많고, 부모님은 맞벌이로 바쁘며 부모님도 아이와 어떻게 놀아줘야 하는지 놀이방법을 모르며 또 놀이를 어렵게 생각한다.

놀이를 충분히 경험한 유아들은 주변에서 오는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놀이를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으며 경험을 통해 상식을 키우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기도 한다.

그래서 이번 누리과정 개정이 참으로 반갑다. 시범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며 동료 교사,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교실 환경을 바뀌어가고 놀이중심을 실천해 보며 ‘아이 중심, 놀이 중심’이 서류에서만 실행 가능한 것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아이, 부모, 교사, 지역, 국가 모두가 ‘참 좋다, 잘 바뀌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모두의 역할, 인식개선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실천 가능한 놀이 중심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제안을 교사 관점으로 해 본다.

첫째, 충분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유아들의 놀이 공간인 보육실에서 식사, 낮잠, 대체활동 등이 모두 이루어진다. 놀이를 하다가 정리하지 않고 그냥 두고 싶어도 정리를 해야 한다. 또 일찍 식사를 마친 유아, 낮잠에서 깬 유아는 놀이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현재 보육실인 하나의 공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 책을 보며 기다리게 하거나, 교사가 선택해 주는 영역에서 놀이한다.

그런데 한 반당, 한 개의 보육실과 놀잇감이 없는 빈 공간이 있을 경우 한쪽 공간에서는 자유 선택활동을 충분히 하고, 한쪽에서는 낮잠, 식사, 휴식, 대근육 활동, 대체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두 교실을 살피는 두 명의 교사 또는 보조교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누리과정을 진행하려면 어려움이 무척 많을 것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하라면 해낼 것이다. 만성피로, 효율적이지 못한 정책을 비난하며,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그로 인해 뉴스에서 ‘보육교사-아동학대’라는 말은 계속 듣게 될 것이다.

또 어떤 어린이집에는 놀이터가 없어 근처 공원, 아파트 놀이터를 찾아가 실외놀이를 해야 한다. 어린이집에 놀이터가 없는 경우 그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여 유아들이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주변 보육교사 중 유아들을 위해 개인 사비로 교구, 재료 등을 구입한 경험이 많다. 그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처리가 어려운 업체(재래시장, 웹사이트), 교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답변을 듣고 주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필요하지 않는 것 같다, 만들어 쓰면 되지 않느냐’는 등의 이유로 거절당한 경험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활동을 진행하다 보면 유아들이 원하는 것을 교사가 듣고 바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입과정과 처리과정이 신속해야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고 유아, 교사의 권이 반영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국가에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놀이 중심에 대한 부모연수(교육)를 국가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식당, 여행지, 카페 등에서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는 어른을 찾는 것은 무척 쉽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도 핸드폰이 거의 있다. 아이들에게 왜 핸드폰을 하냐고 물으면 ‘심심해서요.’ 라는 답변이 많다. 아이들과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모르는 부모, 주말이면 쌓인 피로로 쉬고 싶어 하는 부모로 인해 아이들이 핸드폰을 찾고 있다. 그러므로 부모들에게 놀이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고 놀이 교육을 받은 부모들은 아이들과 놀이를 시도할 것이고 그 속에서 맛보는 행복감으로 또 아이들과 놀이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놀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넘어지기도, 가시에 찔러보기도 한다. 요즘 유아들은 작은 자극에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놀이를 해 보아야 놀이 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지’ 하고 생각하게 되며 놀이가 필요함을 부모들 인식이 개선 될 것이다.

셋째, 어린이집 등원시간을 9시 이전으로 정해야한다.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하루 12시간을 보육할 수 있다. 그런데 7시 30분에 등원하는 유아도 있고 10시 30분 또는 병원 갔다가 12시에 등원하는 등, 원에서 정해진 등원시간, 귀가시간은 없고 부모가 편한 시간에 등원시키고 하원시킨다. 이러다 보면 누리과정 편성 시간인 4~5시간을 어떤 아이는 충족하고 또 늦게 등원했다 일찍 귀가하는 유아는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9시 이전에 등원하여 3시에 귀가 할 수 있게 하여야한다. 그래야 교사들도 유아들이 귀가 한 뒤 오늘 하루 일과를 기록하고 유아들과의 놀이를 준비할 수 있다.

넷째, 놀이 중심은 놀이 중심으로 끝나야한다.

‘놀이 중심 시간 끝났으니, 공부하자?’하는 어린이집이 생겨서는 안 된다. 하루일과 중 4~5시간의 누리과정 편성을 하고 난 후에는 특별활동과 인지교재를 할 시간도 없고, 만약 인지활동할 경우 만 3세의 경우 낮잠은 3시 이후에나 가능하다. 그렇다면 졸려하는 아이를 낮잠을 재우지 않고 인지교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 만약 일찍 귀가한 유아가 있다면 그 아이를 데리고 인지교재는 언제 할 수 있겠는가? 이로 인해 또 아동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다섯째, 평가인증과 누리과정이 같은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

평가인증에서는 ‘햇볕이 드는 곳, 문과 가까운 곳, 문과 먼 곳, 물이 있는 곳’ 등 구분을 지어 영역 배치를 하라고 한다. 그런데 유아들과 놀이중심을 진행하려면 유아들에게 많은 약속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주고 그에 따른 경험을 해 보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들에게도 교실 공간, 놀이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고 느슨한 계획 등의 자율성이 필요하다. 평가인증과 누리과정이 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면 누리과정을 시행하다가 평가인증 때가 되면 교사는 평가인증을 따로 준비해야한다. 많은 정책과 개정 등으로 인해 비합리적, 비능률적, 비효율적인 일들을 보육교사들은 계속 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만,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 사람들이 ‘아이’라는 거대한 존재를 잊지 않고 그들이 행복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 결정을 해야 할 시기이다.

여섯째, 교사 대 아동 비율 낮추는 오랜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요즘 초등학교의 경우 한반에 25명이 넘는 아이들을 본 적이 없다. 적게는 16명, 많게는 25명 이하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육을 받는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어떠한가, 어떤 부모님이 ‘내 아이 한, 두 명을 보는 것도 힘든 20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세요.’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맞다. 그 동안 교사들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오고 있다. 그런데 15년 동안 보육교사를 하고 있지만 그 변화는 아주 느리다. 아이들의 발달 수준은 점차 낮아지고 있고,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지 않게 되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놀이 중심의 활동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며 좁은 공간에서 많은 아이들이 생활하며 원활한 놀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는 것이 먼저이고 그 뒤에 놀이 중심 유아 중심이 실행하려고 해야 한다.

2019 개정 누리과정(안)에 대하여

박혜진 (새싹유치원 교사)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접하며

유아교육에서 놀이의 중요성은 모두가 알고 있다. 놀이는 유아의 삶과 발달적 측면, 교사의 일과 운영 및 교수-학습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시행된 교사 연수 등을 통해서도 유아의 자발적 놀이에서 출발하는 교육과정 운영방식을 살짝 접해볼 수 있었다. 이번 개정 누리과정을 살펴보면 기존에 운영하던 누리과정과 비슷한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이 개정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임을 느끼게 되었다.

1. 기존 누리과정 구성체계 유지 및 영역 내용 간략화

누리과정 개정안은 교사가 가장 많이 접하고 다루는 구성체계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어 안정적으로 실행 가능하리라 생각되며, 내용 범주를 조절하였으나 기존의 범주가 통합되고 일부 명칭이 변경된 부분들이 많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전에 이루어진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는 수준별 혹은 연령별로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변경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개정 누리과정에서 세부내용이 사라진 점은 매우 놀랍게 여겨졌다. 현장에서도 누리과정의 세부내용과 학급 내 유아들의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활동을 계획하며, 4세 유아를 담당하지만 유아들의 관심에 따라 5세 수준까지 다루는 등 교육과정을 융통성 있게 운영해 왔다. 누리과정을 연령별로 세분화하는 것이 발달 차이가 큰 유아 시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마치 길잡이가 사라진 듯하다. 누리과정의 세부내용을 삭제하고 간략히 변경한 것이 누리과정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지는 사실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저경력 내지 초임교사들은 개정 누리과정과 개정 전 누리과정의 세부내용을 함께 참고하여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자연탐구 영역의 경

우를 예로 들어보면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수와 연산의 기초개념 알아보기’가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물체를 세어 수량을 안다’로 변경되었다. 이 내용을 교사가 실행할 때 유아들의 놀이를 수세기에 한해 지원할 것인지, 수량의 부분과 전체를 다룰 것인지 혹은 기수, 서수 등 수의 여러 가지 의미를 다룰 것인지를 기준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기존의 다양한 세부 내용 범주에서 교사가 지원하는 것과 ‘물체를 세어 수량을 안다’에서 다양한 내용을 교사가 유추하여 구성하는 것에는 교사 개인의 역량 차이가 크게 드러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향후 제공될 해설서에는 해당 내용의 상세한 설명이 덧붙여져 현장에서 교사가 발달에 적합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되기를 바란다.

2. 유아 중심·놀이 중심으로 교사의 교육과정 수립의 전환

일부 유치원에서는 이미 생활주제를 통한 운영에서 벗어나 유아들의 관심과 놀이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자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토론자가 속한 유치원도 이러한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교사 중심으로 이끌어가던 교육과정을 유아들로부터 끌어내는 것 또는 처음부터 유아들의 관심에서 시작된 놀이에 누리과정 내용을 접목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교사들이 몇 년간 진행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제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당장 7월에 개정안이 발표되고 현장에는 2020년부터 적용될 때 교사들이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정 없이 단기간에 안착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아들이 자유롭게 놀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교사의 책무성 또한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어느 선까지 교사가 지원할 것인가? 혹은 유아들의 발상이 어디까지 교육적 가치가 있는 놀이가 될 것인가? 등 교사는 무수히 많은 선택과 판단의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운영을 위해서 교사는 유아에 대한 관찰 및 이해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교재·교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특별한 자료 없이 교사가 검색하고 찾아낸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다. 유아의 창의적인 놀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을 발견하고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이 매우 필요하다. 유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수립과 운영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된 교육과정을 실행할 현장의 많은 교사들이 받아들이고 준비할 시간과 여건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따라서 이번 개정 누리과정을 안내하는 교사 연수는 매우 중요할 것이다. 내용을 전달하는 강의식 연수뿐만 아니

라 이미 교육과정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유치원들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접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기존의 활동들을 어떻게 유아중심으로 옮겨 실행할 수 있을지 배우고 부딪혀볼 수 있는 연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현장의 자율성과 평가

교사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은 변화하는 사회 특성상 필요한 과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사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과 유아 경험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전반적인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서 실행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교사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유아들이 겪는 경험의 차이는 더욱 극대화 될 수도 있다. 개정 누리과정의 기저에 있는 출발선 평등의 개념과 이를 실현해야 할 공교육에는 최소한 우리나라의 모든 유아들이 같은 시기에 비슷한 수준의 경험이 필요함을 전제로 한다. 최소한의 경험이라는 것도 어떤 곳은 100만금이, 어떤 곳은 1만금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교사가 누리과정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은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무상교육인 초등학교는 대체로 거주지에 가까운 곳으로 배정받고 있으나 유치원은 지역과 상관없이 부모가 유치원을 선택하여 지원하며, 사립의 경우 지원금 제외하고 추가의 비용도 지불하고 있다. 누리과정 성격의 마항처럼 학부모와 지역사회 역시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유아를 위한 공통된 교육관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전 토론회를 참고하더라도 부모들의 한글, 수 등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유아기에 영어 노출에 대한 수요도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개정 누리과정이 이러한 부모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고, 이것이 유아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면 국가가 앞장서서 학부모의 유아기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주기를 희망한다. 과도한 특성화 활동과 학습지를 벗어난 놀이에서 출발하는 교육의 가치와 필요성뿐만 아니라 개정 누리과정을 통해 유아들이 추후 연계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까지 자연스럽게 준비하고, 잘 성장할 수 있음을 부모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는 실제로 그렇게 질 높은 유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책무성도 있다.

평가항목의 경우 11가지 항목에서 4가지 항목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교사의 교수방법이 아닌 유아의 변화 및 유아의 누리과정 이해 정도에 초점을 맞춘 것은 적절하지만 이를 위한 평가 방법의 변화 및 예시가 필요할 것이다. 누리과정 운영의 질이라는 것은 사실 주관적인 평가 부분이다. 질적 평가를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지표가 있을 때 현장에서도 적절히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적용을 앞두고

현장에서 누리과정 편성지침에 맞게 놀이시간을 운영해도 어린이들은 놀이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곤 한다. 유아들이 유치원에서 하고 싶은 것, 좋았던 것을 나눌 때에도 항상 놀이시간과 바깥놀이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 이번 개정 누리과정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어린이들의 삶 자체인 놀이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어린이들이 신나게 놀이하고, 몰입하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자라나기를, 그리고 어린이들의 행복한 놀이를 위해서 교육과정을 잘 꾸려가도록 적절하게 지원하여 교사도 함께 행복한 교육과정이 수립되기를 기대해 본다.

‘유아’와 ‘놀이’가 살아있는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고찰

이 정 선 (반포퍼스티지 하늘어린이집 교사)

1. 들어가는 말

어린이집 현장 경력 6년차 교사인 나. 유아 중심·놀이 중심 교육을 지향하며 교실을 운영해 온 지난 시간 안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피워낸 웃음꽃이 기억에 생생하다. 현장에서 확인한 어린이들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 누리과정(안)의 핵심에 있는 ‘유아’와 ‘놀이’가 더욱 분명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언하고 싶다. 또한 이 핵심 가치가 각각의 교육 현장에서 충분히 이해되고 바르게 적용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자 한다.

2. ‘유아’ 자리매김하기

교실에서 나는 어린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마음으로 다가갈 때에야 비로소 교사의 말과 행동, 교실의 환경이 그 어린이 안에 유의미하게 흘러들어가는 것을 매일 경험한다. 교육에 있어서 어린이들의 존재 자체와 그들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시각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번 개정안이 연령별 수준의 구분을 없애고 3~5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최소한의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한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연령별로 나누어져 있던 영역별 목표와 내용은 어린이들의 개별적인 속도와 수준의 차이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존중하도록 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137개에 달하는 많은 내용 또한 어린이를 바라보는 시각을 경직되게 했다. 이번 개정안이 담고 있는 최소한의 내용을 교육과정 운영의 바탕으로 할 때, 현장은 각각의 어린이가 가진 독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한편 2019 개정 누리과정(안) 본문 제1장의 ‘누리과정의 운영’ 중 ‘교수·학습’ 내용에서 ‘마. 5개 영역의 내용을 통합하여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는 항목은 유아의 경험보다 누리과정 5개 영역이 우선시될 염려를 갖게 한다. 5개 영역의 내용을 기준으로 활동을 계획하

고 실행하는 것에 그치는 적용을 낳을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유아가 자발적으로 펼쳐가는 경험을 중심에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해나가기 위해서는 ‘5개 영역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아의 경험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지원한다.’는 문장이 더 적절할 것이다.

3. ‘놀이’ 자리매김하기



올해 내가 담임을 맡고 있는 에헴호랑이반(4세)에는 땃돌이 있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예상했던 과정은, 어린이들이 땃돌을 통하여 콩에 관심을 갖고 그 안에 담긴 다양한 자연 현상을 탐구해나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땃돌을 돌리는 행위 그 자체에 오랜 시간 흥미를 가지고 머물렀다. 삼삼오오 둘러앉아 땃돌 돌리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어린이들이었다. 처음에 예상하고 기대했던 교사로서의 시각 안에서 조금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어린이들의 놀이 안에 함께 들어갔을 때 새로운 것들이 보였다.

“친구와 함께 얼굴을 마주보며 손을 맞잡는 순간의 따뜻함, 힘차게 땃돌을 돌릴 때 들리는 ‘드르륵 타다닥’ 소리의 경쾌함, 회를 거듭할 록 점점 작은 가루가 되어 나오는 콩을 보며 느끼는 성취감... 지그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는 어린이들의 경험들이다. 어린이들에게 땃돌은 어떠한 삶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저 친구였다.” (2019.04.13. 놀이 기록 中)

이처럼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놀이 안에서 어린이들은 온 몸과 마음을 열어 타자와 교감하며, 유의미한 지식과 감성을 조직해나간다. 이는 누리과정 5개 영역의 내용을 충분히 아우를 뿐 아니라 그 수준을 훌쩍 뛰어넘기도 한다. 이것이 이번 개정안에서 ‘놀이’를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2019 개정 누리과정(안)의 제1장, ‘누리과정의 운영’ 중 ‘교수 학습’의 ‘나. 유아의 자유놀이부터 교사가 계획한 활동까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는 내용은 놀이의 본질적 의미를 다소 흐리게 하는 것 같다. 교사의 계획 안에서 주도성과 자발성이 반감된 유아의 경험까지 과연 진짜 놀이라고 할 수 있을까? 놀이의 순전한 의미와 가치가 흐려지지 않도록, ‘유아의 자유놀이부터 교사가 계획한 활동까지 즐겁게 배우도록 한

다.’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교육과정에 대한 가정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간담회, 개별 상담, 그리고 매주 보내는 반소식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놀이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놀기만 해서 이제 공부 좀 시키려고요.” 하고 말하며 기관을 옮기는 학부모들이 있다. 놀이와 학습이 이분법적으로 나뉜 교육 환경에서 자라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이해가 사회에 팽배하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 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의 양육자를 비롯한 주변 환경의 분위기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2019 개정 누리과정(안)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는 부모들이,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반이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누리과정 안에 담긴 놀이 중심 교육 방향 및 목표를 가정과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 등의 방안 모색을 제안하는 바이다.

4. 기관별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적 권한 부여하기

유아 중심·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은 반드시 다채로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 지역사회, 학부모 개인 및 집단, 유아 개인 및 집단, 원장과 교사 개인 및 집단에 이르는 여러 요인에 따라 유아와 그들의 놀이가 가지각색일 것이기 때문이다. 2년 전 4세 교실에서 이루어졌던 가게 놀이 안에서 어린이들은 2~3명씩 짝을 지어 10개 이상의 가게를 만들어냈고, 교사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시도들과 활발한 교류를 실행해나갔다. 이처럼 놀이의 내용과 형태는 수만 가지로 변화되고 깊이 있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한 독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이야말로 그 현장에 속한 어린이의 잠재력을 최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2019 개정 누리과정(안) 제1장 ‘누리과정의 운영’ 중 ‘편성·운영’의 ‘다.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는 항목의 내용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다소 제한하고 있는 듯하여 아쉽게 느껴진다. ‘각 기관의 실정’이라고만 국한적으로 설명하기보다 ‘각 지역사회, 교사, 부모, 유아의 실정’이라고 범위를 구체적으로 넓혀 제시한다면 자율적 운영의 가능성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올 것 같다. 더불어 ‘~ 실정에 적합한’이라는 표현보다 ‘~실정을 고려한’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 또한, 현장의 교사들이 보다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고무적이라 생각한다.

5. 공동체적 교사 교육과정 개발하기

위에서 언급한 학부모뿐만 아니라 나 또한 일률적이고 지식중심적인 교육환경에서 자랐기에, 어린이들 한 명 한 명과 함께 호흡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교실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다. 이것은 한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역사와 문화에 기반한 공동체적 문제이기에, 그 어려움을 해소해나가기 위한 방안도 협력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살을 부비며, 어린이들과 해나가고자 하는 느린 호흡의 소통이 우리 어른들 안에서도 경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도 놀면서 즐겁게 협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내 아이, 내 교실’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우리들의 아이, 우리들의 교실’로 서로를 바라보고 경험을 공유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지원하는 크고 작은 단위의 교사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시행되기를 기대한다.

5. 나오는 말

이번 2019 누리과정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모든 어린이들이 더욱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이루어나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안에 담긴 소중한 가치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세밀한 수정과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것이 서랍 속에 넣어두는 문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교사들이 든든한 기초로 삼음과 동시에 자유롭게 그 독특성을 펼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놀이’를 통해 성장하는 아이들

서현빈 (성결대학교부속유치원 학부모)

#공청회를 앞두고

유아교육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에 누리과정개정이라는 토론에 참석하는 것에 큰 부담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놀이중심 교육을 하는 유치원 학부모로서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나은 교육을 받고 더 행복한 아이로 성장하길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더 나은 유아교육을 위해 연구하고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놀이에 대한 우리의 편견

‘놀이’에 대한 편견은 일이나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고 시간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표준어사전을 찾아보아도 놀이의 정의는 신체적·정신적 활동 중에서 식사·수면·호흡·배설 등 직접 생존에 관계되는 활동을 제외하고 ‘일’과 대립하는 개념을 가진 활동이라 나와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육아서와 매체들에서 놀이를 통한 교육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우수한 사례와 결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놀이 중심, 유아 중심을 목표로 교육을 하고 있는 유치원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로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놀이라는 것을 공감합니다.

동네에서 일명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놀기만 하는 유치원’으로 불리는 우리 아이의 유치원을 선택하게 된 것은 ‘앞으로 실컷 할 공부를 어릴 때부터 질리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 역시 놀이는 공부의 상반되는 개념이

라 생각했고 놀이교육의 깊이와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입니다.

유치원을 다니며 재활용품 몇 개를 풀로 붙이고, 줄로 칭칭 감고, 테이프를 덕지덕지 발라 오며 완성품이라는 만 3세의 제 아이를 보며 엄마의 선택을 고민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아이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에서 뿐 아니라 집에서도 무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놀이를 할 방법을 연구하는 듯 했습니다. 다른 원을 다니는 아이들처럼 사과를 apple, 고양이는 cat이라고 소리내지는 않았지만 혼자 흥얼대며 꽃을 관찰하고 조사하고 그림을 그리고 만들기를 합니다. 만 5세가 된 지금은 제법 그럴듯한 완성품 놀이감을 만들어내고 감동적인 편지를 적어오기도 합니다. 팬케이크 만들기는 계획을 하고, 재료를 구입하고, 만들고, 나누어 먹는 과정까지 아이들이 직접 스스로 참여해서 진행했기에 집에서도 엄마에게 대접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유선택놀이

처음에 아이들에게 자유선택놀이 시간은 막막하고 답답한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 각 기관에서는 정해진 일과 속에서 놀이에 길들여진 아이들이고, 가정교육을 하는 아이들 역시 부모에 의해 원하는 놀이를 해 온 아이들이기에 스스로 선택하고 주도해야한다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금방 달라졌습니다. 스스로 놀이를 선택할 뿐 아니라 계획하고 놀이에 필요한 친구를 찾고 놀이감을 직접 만들고, 놀이가 끝나면 스스로 정리합니다. 이 놀이 속에서 미래사회에서 필요하다는 상상력, 자립심, 협력, 사회성, 주도성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체험하며 익혀갑니다.

조금은 속도가 느린 아이들도 있고, 금방 적응을 해 무리를 이끄는 리더십이 넘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놀이에는 정답이 없기에 그건 뒤쳐지는 것도 더딘 것도 아닙니다.

놀이 중심의 원을 보내면서 가장 장점이라고 여겨졌던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유아기의 아이들은 월령별로 큰 발달의 차이를 보입니다. 소근육, 대근육, 언어, 인지 등 여러 가지 발달사항도 다르고 성향도 크게 다릅니다. 하지만 같은 학급에 월령에 따라 10개월 이상의 차이가 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교육자에 의한 학습은 그 발달차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고, 그 차이를 보완하겠다고 부모는 선행학습을 합니다. 다른 아이들과 비슷한 수

준을 유지하기 위해, 혹은 더 앞서기 위해, 뒤쳐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부모는 사교육의 늪에 빠집니다.

놀이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어떠한 놀이든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고 개별유아의 장점, 본인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과정이 놀이 속에 숨어있습니다.

#배움의 방법

우리 아이들은 ‘도구’를 배우기 위해 동네 떡집으로 구경을 갑니다. 다양한 도구가 사용되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생활에 꼭 필요한 도구의 쓰임에 대해 보고 듣고 돌아온 아이들은 스스로 재활용품을 사용해 도구를 만들어보고 새로운 쓰임도 상상합니다. 떡 가게를 열수도 있고 그 이상의 확장놀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고 클릭 한번에 ‘도구’라는 단어의 정의와 종류 등은 찾아볼 수 있지만 내 눈으로 본 장면과 놀이로 체험한 도구의 경험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험은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더 증폭시켜주고 사물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게 합니다. 다른 장소에 가더라도 그때의 경험을 살려 스스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성장합니다.

각 출판사들은 누리과정의 교육내용으로 선행학습을 위한 다양한 책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수록 사교육 시장은 더욱 커집니다. 이번 누리과정 개정을 통해 유아기의 아이들이 ‘유아가 경험해야할 최소한의 내용’만을 배우고 건장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의 인간상을 익히고, 아이다운 행복한 유아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합교육

요즘 저를 포함한 만 5세의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변화에 계속 놀라고 있습니다.

만 5세가 된지 몇 달이 지났을 뿐인데 아기티를 벗고 의젓한 형님으로서 동생들을 챙겼습니다. 만 5세가 만 3, 4세 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그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동생들은 성장의 기대감을 배웁니다. 교사가 유아를 바라보는 교육방향이 현시점 1년에 머물러있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의 유아기 전반을 기대하며 교육하기에 연령별로 별도의 학급이 나누어져 있어도 교사간의 소통과 정보공유로 통합교육과 같은 효과를 누리고 있고 학년을 올라가도 연속성 있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놀이의 결과물

우리 원의 졸업식은 아이들이 스스로 진행합니다. 계획하고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도움이 필요한 것은 교사에게 요청하고 직접 진행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이 놀이였고, 졸업식도 놀이처럼 받아들여 프로젝트를 해내는 결과를 보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놀이란

아이의 학급의 이번 달 생활주제는 주제 없는 달입니다. 유아 개인의 놀이 선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놀이 자체가 주제로 이어지는 달입니다.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나는 우리 유치원 가는 게 매일매일 좋은데 이번 달은 그중에서도 최고의 달이야. 이만큼의 시간 중에서 자유선택놀이시간이 최고로 많은 달이래. 얼마나 해보고 싶은 게 많은지 몰라. 정말 정말 행복해.”

아이를 가장 아이답게 해줄 수 있는 건 놀이인 것 같습니다. 유아기에 갖추어야 할 인성과 기초적인 배움은 놀이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에 가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모두 한글을 쓰고 읽을 줄 압니다. 한글의 교육과정이 초등학교에 있는 이유는 그때가 가장 적합한 교육의 시기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원의 만 5세의 아이들의 1/2은 아직 한글을 완벽히 쓰고 읽지 못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준비가 되었을 때 주도적으로 자발적인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만 4세 때부터 조사놀이를 합니다. 처음에는 조사한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 스티커를 붙이고 자신의 발달 정도에 따라 그림을 그리기도 색칠을 하기도 합니다. 더 자세한 조사결과를 기록하고 싶어진 의지가 생기고 동기가 생겼을 때 글씨를 써보고 싶어집니다. 한글은 주변 어느 곳에서나 노출되어있고 그렇게 본인이 원할 때 한글을 익히게 됩니다. 유아기는 그렇게 배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막 걸음마를 배운 아이에게 뛰기를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유아는 유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이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놀이중심교육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이때에 놀이교육 유치원을 다니게 된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원장님과 선생님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용기가 지금의 우리 유치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유아의 삶을 위한 교육은 아이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와주었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해주었습니다. 경험해보니 왜 유아기의 놀이가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누리과정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아이들이 놀이를 통한 진정한 배움의 기쁨을 느끼고, 행복한 유아기를 보내기를 희망합니다.

누리과정과 함께한 EBS, 놀이의 힘을 교사와 함께

이 경 미 (EBS 유아교육사업 팀장)

1. 누리과정과 함께한 EBS

2013년 육아정책연구소와의 공동세미나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EBS의 역할’에서부터 오늘까지 EBS와 누리과정은 긴 시간 함께 했다고 할 수 있다.

공동세미나의 연구 분석 등에 따르면, 유아는 스마트폰 및 TV, 컴퓨터 등 미디어에 노출 되는 시간이 계속 급증하고 있고, 사·공간을 초월한 융복합 콘텐츠를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스마트 미디어 환경이 일상생활에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한다.

유아에게는 질 높은 콘텐츠, 새로운 플랫폼 구축, 시스템의 개발, 다양한 관련 연구 환경 및 전략적 접근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유아에게 적합한 교육매체인 EBS를 통해 올바른 미디어 이용에 대한 모델 제공이 필요했다.

학부모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나 놀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 중심의 사교육이 가정교육을 대체하는 경향이 높다는 분석을 기반으로 EBS는 조기교육이나 사교육이 없이도 유치원 교육으로, 아이의 성장과정에 필요한 교육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현실 대안을 제시하는데 노력해 왔다. 또한 놀이의 중요성 인식과 가정에서의 지도를 위한 다각적인 연계 방안 필요성을 홍보하는데 주력해 왔다.

현장 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유아의 흥미를 반영한 수업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사실을 자문 회의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교육내용의 다양성 부족과 누리과정 및 기타 제공된 자료의 활용성 미흡, 교재·교구의 참고자료 부족의 어려움 등을 말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EBS는 누리과정의 중심에 있는 교사들이 처한 현실에 관심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교사가 지도하기 어려운 생활주제는 실제적인 직접 체험과 다양한 과정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영역별 분류 연구와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들 통해 부족한 교육적 효과를 보완하면서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고 방송으로 기획해왔다.

2. 놀이의 힘을 교사와 함께

「2019 개정 누리과정(안)」은 유아중심, 놀이중심, 현장 교사의 자율권 확대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다. 이미 많은 전문가의 의견 수렴으로 누리과정이 개정되었고 성공적 안착을 위해 EBS는 홍보에 더 많은 고민해야 한다.

EBS와 교사는 여러 가지의 접근방법으로 참된 놀이, 즉 진정한 놀이란 어떤 것인가를 고민해 왔다. 교사의 ‘주체적 영역의 인정’과 ‘자율성 확보’는 「2019 개정 누리과정(안)」 핵심적인 방향이다.

교사가 놀이를 교육시키는 ‘지식습득’은 놀이의 올바른 가치가 아니다. 반드시 활동 위주의 다양한 체험 방식을 통해야 한다. 아이들은 몸으로 직접 경험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가치이다. 이것이 ‘창의력 교육’이다.

EBS는 2012년 ‘놀이의 반란’ 3부작을 시작으로 2013년 ‘놀이터 프로젝트’ 3부작, 2018년 ‘놀이의 힘’까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다. 방송에서는 놀이의 중요성과 놀이의 가치 판단도 과학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놀이 활동은 전두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발적 놀이는 유아의 긍정적인 정서와 안정적인 감정발달로 나타난다. 따라서 조기 교육과 같은, 때 이른 가르침은 전두엽에 나쁜 영향을 준다. 그 결과로는 유아의 의사소통과 사회성 발달을 저하시키고 공격성과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높인다고 한다.

“놀이 후 배움이 최고의 효과를 가져다준다.”라는 핀란드 교사의 말이 있다. 배움의 과정을 보면, 체육 놀이를 먼저 하고 교구로 짝 지어 활동하고 마지막으로 수 개념을 책으로 읽었다. 핀란드에서는 수 개념을 가르치는데 제일 처음 체육놀이를 시작하는 것이 인상이 깊게 남았다.

유아의 자유 놀이 가치를 중요시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안)」이 현장에 보급되면 긍정적 효과는 더 극대화될 것이다. 더불어 교사의 역할은 대화로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해주고, 더 도전할 수 있게 도와주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아이에게 격려해야 한다. 교사는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2019년 개정 누리과정(안)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하나, ‘교사의 역량이 교육의 질’ 교사의 역량 개발과 지역에 따른 격차 해소

이미 「2019 개정 누리과정(안)」에 핵심적인 방향은 잘 제시 되어 있다. 하나 더 지역에 따른 격차 해소의 해결 방안이 추가 되었으면 한다. 교사가 유아의 호기심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다양한 경험을 관찰해서 격려하기에는 유아의 자유놀이가 너무 다양하다. 특히 아이와 교사의 지역에 따른 격차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수도권 중심이 아닌 지역에 따른 차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에는 다양한 유아와 경력에 차이가 있는 교사도 있다. 실제 현장을 고려하여 교사의 맞춤형 역량 개발과 다양한 유아들의 적용한 사례를 구성에 맞게 넣어야 한다.

둘, 자원자료 및 교사교육 개발과 홍보의 중요성

놀이의 중요성이 이슈화가 되면서 의문이 들었다. ‘선생님들은 정말 놀아 보셨을까? 경험한 만큼 노는 것인데’ 다양하게 관찰하고 놀이의 확장에 대한 ‘소통이 가능할까?’를 고민해 본다. 지금은 놀이의 확장기이다. 개념을 알기는 하지만 유아들의 연령별, 개인차 측면과 지적 발달 수준 등 같은 연령을 획일적으로 나누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환경에 있다.

EBS 리얼 놀이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2012년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한 교사 성장 프로젝트>로 시작된 EBS ‘선생님이 달라졌어요’라는 15편의 프로그램이 방송이 되어 화제가 되었다. 선생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수업에 대한 고민을 했던 ‘성장하는 선생님’이 그 주인공 이다. 유아 교사의 리얼 놀이로 제작하여 ‘진짜 잘 놀고, 잘 놀 수 있게 하는 선생님’을 성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의식의 변화와 현장의 소리를 다양한 미디어로 소통하는 것으로 지역, 다양한 환경의 교사도 성장하고, 자원 자료로 활용하여 홍보 효과도 높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결과 중심의 교육 선호’의 학부모의 의식이 변해야 한다.

15~17년 3년간 영유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증가하고 있어 사교육의 저연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17년 연간 추정 액이 15년 대비 204% 급증한 35,945억 원을 기록함에 따라 영유아 사교육 시장 규모가 급팽창하고 있어 사회와

개별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EBS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전망, 유아어린이특임국 18.12). 이에 따라서 학습에 대한 불안함으로 인한 사교육에 대한 맹신의 가치가 높았다. 지금의 누리과정을 부정하지 말고, 기존 누리과정을 기반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현실에 어려움을 잘 알고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아 스스로 성공 경험을 얻는 ‘자유놀이를 강조’해야 한다. ‘놀이시간을 충분히 편성’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는 「2019 개정 누리과정(안)」을 환영하고 싶다.

교사는 다양한 아이들의 능력을 주목해야한다. 아이들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지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교사가 도와주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아이가 도전에 실패하더라도 동기를 불러 넣어 주는 교사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놀이’로 미래를 준비하는 아이를 위해서 유아, 학부모, 교사가 모두 행복한 진정한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누리과정이 개정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EBS는 「2019 개정 누리과정(안)」 - ‘놀이로 배우는 미래사회 핵심 역량’이라는 중요한 뿌리가 튼튼하게 유지되도록 현장의 홍보 조력자로서 열심히 추진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좋은교사운동(2018). 누리과정 개정, 현장의 소리를 듣다, 좋은교사운동 토론회 자료집.
- 장명림(2013).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EBS의 역할, EBS-KICCE 공동세미나 자료집. 11-43.
- 이은정·이경미·이순영(2013). EBS 유아 콘텐츠의 누리과정 적용과 발전방향, EBS-KICCE 공동세미나 자료집. 45-70.
- EBS(2018). EBS 콘텐츠의 활용을 통한 유아의 창의인성능력 신장. EBS 연구유치원 최종 운영 결과 보고회 자료집.
- 유아어린이특임국(2018). EBS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전망. EBS.
-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III),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김길숙·이동하·임준범(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IV),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V), 육아정책연구소.

〈2019 개정 누리과정(안)에 대한 의견서〉

- 작성 후 등록데스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누리과정의 성격			
총 론	누리과정의 구성방향	추구하는 인간상	
		목적과 목표	
		구성의 중점	
	누리과정의 운영	편성·운영	
		교수·학습	
		평가	
영 역 별 목 표 및 내 용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기타			

[illegible]